星武

제31호 | 2005. 7.

空軍士官學校總同窓會

축 사관 53기 졸업 및 임관

空士總同窓會 第13次 運營期數 出帆

(기간 : 2005. 7. 1.~2006. 6. 30.)

祝

發　　展

회　　장 : 이기현
부 회 장 : 고명준, 김무신, 김양수, 김진삼, 남영채, 손덕규, 안병철, 안병하, 이강평, 이정호, 이종대, 이종화, 이회관, 장덕수, 정해성, 조건환, 최인일
감　　사 : 문기철, 태종민
사무총장 : 강신해
후　　원 : 공사 13기 사관 일동

星武 Contents

표제는 보통명사인 '同窓會誌'에서 고유명사 '星武'로 변경하였으며 악필(握筆)가 오담 임종성 선생의 글씨이다.
표지그림은 1951년도에 제정한 사관생도의 생활 규범으로 空士十訓이다(본문 P-45 참조).

4 이임인사
6 취임인사
8 축 사
10 공사총동창회 정기총회/자랑스런 공사인

공군소식

11 한국형 차기 전투기(F-15K) 美서 출고식
12 공군, 57년만에 항공기 태극마크 바꿔

모교소식

13 공군사관학교 제53기 졸업 및 임관식
14 空士 '얼짱' 태국 생도 소위 임관
15 제57기 사관생도 입교식 거행
15 대한수학회 논문상 수상
16 공군사관학교 개교 56주년 기념행사 개최

기획특집 I

17 개인 홈페이지 소개 | 김성곤(2기 사관)
19 PRESIDENT'S MESSAGE | 유재호(3기 사관)
22 공군장병 헌옷 모아 불우이웃 돕기 | 공영화(7기 사관)

신간소개

23 공사인에 관한 신간(新刊)소개 | 정민남(12기 사관)

회원기고

27 만학유감(晩學有感) | 서진태(8기 사관)
31 공사인, 무엇이 그 정체성인가? | 정민남(12기 사관)
35 한식일 여행 | 이봉길(18기 사관)
37 매일 매일을 새롭게 시작하자 | 금기연(21기 사관)

특별기고

40 공군사관학교, 아직도 마음 한 구석에… 접힌 꿈과 열린 꿈 | 전인영(서울대 교수)

발행일자 | 2005년 7월(제31호) · 발행인 | 공사총동창회장 · 발행처 | 공사총동창회(T. 02-823-1091, 군.923-6792) · 편집·디자인·인쇄 | 공군교재창

제31호 | 2005. 7.

제1회 모교 방문의 날(Home Coming Day)을 맞으며 | 편집실 43
공사 History Review/옛날 옛적에… | 편집실 44

기획특집 Ⅱ

공군사관학교, 그 뿌리를 찾아서 | 배기준(12기 사관) 46

동창회지가 다시 찾아준 인연

이은봉의 편지 58
필리핀 김혜숙 여사의 편지 60

자랑스런 공사인으로 사는 모습

자랑스런 공사인 | 홍재학(4기 사관) 62

각 기생회/미주지회 동정(動靜)

공사1기 사관의 근황과 소원 64
5기 사관(신성회) 소식 67
미주(美洲)지역 동문 소식 68

총동창회 소식

정기총회 75
적립기금 및 운영금 현황 76
회비납부 안내 80
제12차년도 찬조현황 81
제12차년도 운영결산 82
전역자 현황 83
알립니다 84
주소변경 85
각 기생 홈페이지 운영현황 소개 86
기수별 동기생회 임원 변동사항 86
편집후기 88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는 공사동창회의 공식 견해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Quit Address

이임회장 **박 춘 택**

존경하는 선후배 동창회원님, 그리고 12기 이사회원 여러분!

12차년도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운영을 12기 사관이 맡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 후배 13기 사관 동창들께 동창회 운영을 인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모교 공군사관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열성을 다하여 후원하여 주시고 총동창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따뜻한 성의로서 지원하여 주신 선후배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고마웠던 일은 12기 사관 이사회원들께서 동창회 운영이 제대로 되도록 물심양면으로 협력하여 주신 것으로 뜨거운 동기생애(同期生愛), 동창애(同窓愛)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2차년도 운영기수가 동창회 운영에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것은 현역 동창생들이 동창회원으로서의 인식을 제대로 갖도록 하고 현역 회원들이 동창회를 적극 지원토록 권유, 독려하는 것이었습니다. 총동창회가 현역 회원들께 한발자욱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군본부의 협조를 받아 중앙전산소의 각 기생별 인트라넷을 통하여 동창회 소식을 수시로 알리도록 제도화하고, 어려움을 겪는 현역 동창돕기와 공사 53기생들이 2005년 졸업, 임관하면서부터 동창의식을 갖도록 동창회 배지와 동창회지를 전달하고, 현역 동창들에게도 동창회지가 배포되도록 발행부수를 3,500부에서 7,500부로 증간하는 등 노력을 하였는데,

이임인사

앞으로 이러한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어 현역 동창들의 동창회에 대한 애정과 참여가 더욱 증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난 1년동안 있었던 일 중 크게 기억에 남는 일은 3기 선배님들의 졸업, 임관 50주년 기념행사가 성대하고 인상깊게 수행되었던 일입니다. 미국 동부(뉴욕) 지회 창설과 친목바둑대회를 성황리에 수행한 것도 기억에 남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12차 운영 기수는, 우리 모교 공군사관학교가 1949년 6월 10일 김포에서 항공사관학교로 개교한 이후 6 · 25전쟁으로 인한 이동을 포함한 오늘의 청주에 자리잡을 때까지의 "공군사관학교 뿌리찾기"와 "제1회 모교방문(Home Coming)행사", 자랑스러운 공사인 선정, 동창회지 제호 "星武" 적용, 평생회비를 낸 현역, 예비역 회원들에 대한 지원확대 등 동창회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고 친목을 증진시키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운영책임 기한이 다 되니, 부족함과 아쉬움이 앞을 막습니다.

이제 12차년도 동창회 운영을 마감하면서 존경하는 선후배, 예비역, 현역 동창회원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의 주인은 우리 모두라는 것입니다. 특히 현역들은 군내에서 동창회 활동은 자제하되 마음과 정성은 총동창회에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 마음과 정성은 모교 공군사관학교로 연결됩니다.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동창회 운영을 13차 운영기수에게 넘기게 되었습니다. 총동창회를 훌륭한 인품과 지도력을 갖춘 이기현 차기 회장에게 인계하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면서 총동창회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킬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난 1년동안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선후배 동창 여러분들과 12기생 이사 회원 여러분들게 다시 한번 더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Inaugural Address

신임회장 이 기 현

존경하는 공군사관학교 선후배 동창 여러분!

그리고 홍안의 청년 시절에 '하늘을 날겠다'는 꿈을 안고 공군의 요람인 '성무대'에서 처음 만나 이순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우정을 나누고 있는 영원한 전우이자, 가장 소중한 친구인 13기 패공회 동기생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13기 사관일동은 우리 공군과 공군사관학교에 대한 한결같은 존경과 감사와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운영의 무거운 책임을 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지난 날을 되돌아 보면, 푸른 제복이 좋아 '조국과 하늘에 몸과 마음을 바치겠다'는 일념으로 삭풍이 휘몰아치던 한겨울 성무대에서 시작했던 생도시절에 우리는 피보다도 더 진한 전우애와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명예와 조국에 대한 의무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무대를 떠나던 날 임관의 성취감과 환희를 가슴에 안고 '푸른 꿈을 이루겠다'는 각오로 장교로서의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던 감회는 그 어떠한 시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가슴 벅찬 추억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공군을 떠난 예비역 동창생과 현역으로 국가보위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현역 동창생 그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오늘의

취임인사

우리가 있게 한 것은 우리 공군과 모교인 공군사관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엄연한 사실일 것입니다.

이 엄연한 사실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날까지 공군과 모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이유이며, 이것이 또한 우리들이 해야 할 'Noblesse Oblige' 입니다.

한편, 돌이켜 보면 1기 선배님에서부터 금년에 임관한 53기 사관에 이르기까지, 살아온 인생의 경험과 가치관과 비전은 다를지라도 우리의 모교는 공군사관학교이며, 영원한 선후배간이며, 영원한 동기생이며, 영원한 전우이며 공군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영원한 '공군인' 입니다.
따라서 영원한 '공군인' 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선후배 상호간에 존경과 신뢰를 갖도록 우리 모두 더욱더 노력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공사총동창회는 공군과 모교가 존재하는 한 영원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13기 사관 모두는 공군과 모교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에 대해 중지를 모아 생각하고, 정성을 다할 굳은 각오를 밝히면서, 동창회원 여러분께서 이룩해 놓으신 터전 위에 보다 발전하는 총동창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총동창회의 발전을 위해서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선후배 회원님과 특히 지난 1년간 총동창회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켜온 박춘택 회장님과 12기 선배님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드리며, 8,000여 총동창회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함께 기원합니다.

A Message of Congratulation

공군참모총장 대장 이 한 호

존경하옵는 초대 사관 최규순 회장님, 현 총동창회 박춘택 회장님을 비롯한 역대 참모총장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공사 총동창회 회원 여러분!

오늘,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가 새로운 출발과 힘찬 도약을 다짐하기 위해 2005년도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사 총동창회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 이임하시는 박춘택 회장님의 업적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이기현 장군님께서 신임 회장으로 추대되신 것을 충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공사 총동창회는 **미주 동부지역 지회 결성, Home Coming Day 최초 실시, 어려운 동문 돕기 확대** 등을 통해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활성화시키고 모교와 공군 발전을 위해서도 활동의 폭을 넓히는데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성원에 힘입어, 현재 공군사관학교는 항공우주시대를 주도할 우수자원 확보 노력과 함께, 사관생도 정예화에 총력을 경주함으로써,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평소 모교와 공군 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주요 현안에 대하여 공군의 입장을 적극 대변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군참모총장 축사

존경하는 공사 총동창회 회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북핵문제로 인해 한반도에 예기치 않은 군사적 긴장 조성 가능성에 대비하여 공군 전 장병은 **빈틈없는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협력적 자주국방' 구현을 위해 **미래지향적 공군력 건설**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강한 공군', '긍지와 보람에 넘치는 자랑스러운 공군'을 육성하기 위하여 실전적 교육훈련과 업무수행체계 혁신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사관학교는 한 단계 높은 교육목표를 설정하여 초급장교로서의 실질적인 지휘,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과정을 대폭 개선하고, 이에 대한 엄정한 적용과 평가를 통해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 생도 교육체계를 정착시킴으로써, 21세기 공군이 요구하는 **군사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병 기본권 신장과 밝고 명랑한 병영생활 조성, 합리적 지휘관리를 통해 **엄정한 군기강을 확립**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저희들의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선진 정예공군'**으로 거듭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참석하신 회원 여러분의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정기총회를 계기로 공사 총동창회가 보다 조직화되고 활성화되어 더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공군에서도 본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뜻깊은 정기총회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역대 참모총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의 건안하심과 신임 이기현 회장님이 이끄시는 공사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6월 22일

공사총동창회 정기총회(2005. 6. 22.)

공사총동창회는 제12차 정기총회에서 이기현 전 작전사령관을 제13차년도 회장으로 하는 13기 운영기수의 회장단이 출범하여 1년간 총동창회의 업무를 12차년도 운영기수인 12기 사관으로부터 인수하였다.

자랑스런 공사인

공사총동창회는 제12차 정기총회에서 제1회 '자랑스런 공사인'으로 선정된 4기 사관 홍재학 회원에게 기념패를 증정하였다.

한국형 차기 전투기(F-15K) 美서 출고식

우리 공군의 차기 전투기인 F-15K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전력화된다.

공군은 F-15K 1호기 출고식이 지난 3월 16일(현지시간) 미국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보잉사 공장에서 이한호(李漢鎬) 공군참모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고 밝혔다. 공군은 이에 따라 오는 10월 18일~23일 서울공항에서 열리는 '서울 에어쇼 2005' 행사 때 F-15K 초도 인수기 두 대의 일반인 공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군 항공사업단 전투기사업처장 이윤상(52) 대령은 "당초 올 11월 두 대를 인수키로 했으나 우리 공군이 보유할 세계 최강의 전투기를 국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인수 일정을 조정 중에 있다"고 말했다. F-15K는 최대 10.4톤의 탑재량으로 각종 장거리와 정밀 타격 무장 장착이 가능하고 장거리 공대지·함 유도탄(SLAM-ER), 공대함 유도탄(HARPOON Ⅱ) 등 다양한 공격 능력을 확보했다.

특히 최신 지형 추적 시스템 보유로 야간 악천후에서 저고도 고속 운항이 가능하며 첨단 자체 보호 장비를 장착해 생존성을 높였다.

이 밖에 조종사는 헬멧에 장착된 시현 장비로 레이더와 센서가 탐지한 목표물 정보를 보면서 신형 AIM-9X 공대공 미사일을 조준해 발사할 수 있는 특징을 갖췄다.

공군 관계자는 "이번 F-15K 초도기 출고는 대한민국 공군이 전술적 수준에서 작전적·전략적 수준으로 도약하는 진입점을 의미한다"며 "앞으로 이 항공기가 대북 억제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미래의 불특정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갖춰 나가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02년 4월 차기 전투기 사업의 대상으로 결정된 F-15K는 2009년까지 5조 6,000여억 원을 투자, 40대를 확보하며 올 10월 두 대를 시작으로 2008년까지 순차적으로 인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군, 57년만에 항공기 태극마크 바꿔

- F-15K 포함, 공군 전 항공기에 적용
- 한국 공군의 독자성 반영, 자긍심 고취

공군이 항공기 태극마크를 57년만에 새롭게 바꾼다.

공군은 한국 공군의 독자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48년 L-4 연락기를 최초 인수할 당시부터 사용해 온 항공기 태극마크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디자인 작업 및 예비역 · 현역 설문조사, 설명회 등을 거쳐 지난 2월 최종 개선 도안을 결정했으며, 3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도색작업에 들어갔다.

과거의 태극마크는 태극문양 좌우에 적색 줄무늬가 있고, 마크 전체에 청색 테두리가 그려져 있었다. 이에 비해, 새 태극마크는 줄무늬 대신 태극 4괘 중 하나인 '건(乾)'을 배치하고 청색 테두리를 삭제하여, 태극기의 고유 형상에 한층 가까워졌다. '건(乾)'은 '하늘'을 상징하기에 공군의 이미지와도 잘 어울린다. 이번 디자인 개선은 우리 영공을 지키는 공군 항공기에 대한민국 고유의 형상을 담은 태극마크를 달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올해가 광복 60주년이라는 점과 맞물려 새 태극마크가 공군 장병들의 애국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리라 기대된다.

새 태극마크는 최근 초도기를 출고한 F-15K를 포함, 공군의 전 항공기에 순차적으로 도색된다. 다만, 전투기에는 작전 수행을 위하여 위장색으로 그려질 예정이다.

항공 우주시대의 주역

공군사관학교 제53기 졸업 및 임관식

– 군사학사 최초 수여, 전 졸업생 두 개 학사 학위 받아
– 전체 수석에 전창범 소위, '대통령상' 영예
– 졸업식 행사 인터넷 생중계, 참석 못한 가족 · 친지 호응

공군사관학교 제53기 졸업 및 임관식이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군 내외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3월 8일(화), 공군사관학교(이하 공사)에서 거행됐다. 이날 주목을 끈 것은 졸업생들에게 수여된 군사학사 학위. 이는 '04년 1월 일부 개정된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것으로, 금년부터 3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장교들은 공학사나 이학사, 문학사 등 전공에 따른 학위와 함께 군사학사 학위가 추가돼 두 개의 학위를 동시에 받게 됐다. 올해 공사의 졸업식이 3군 사관학교 중 가장 먼저 거행됨에 따라 국내 1호 군사학사들이 공사에서 처음 배출된 셈.

노무현 대통령은 졸업생들에게 보내는 치사를 통해 "공군력은 전쟁억제의 핵심전력일 뿐만 아니라 전쟁승리의 결정적인 요소"라고 말하며, 21세기 항공우주시대의 주역이 될 신임 장교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각각 육 · 해 · 공군 아버지를 둔 세 동기가 탄생해 화제가 되기도 했으며, 4년간 수탁교육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태국의 다이텝(Traithep Kepsilpa, 25세) 소위와 한국 후견인 박종관 씨(朴鐘寬, 49세, 다우산업 대표)의 따뜻한 사연이 소개되어 주변을 흐뭇하게 하기도 했다. 한편, 공사는 이날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하지 못한 가족과 친지들을 위해 개교 이래 최초로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afa.ac.kr)를 통해 행사 전 과정을 생중계해 큰 호응을 얻었다.

空士 '얼짱' 태국 생도 소위 임관

- 다이텝 소위, 공사 수탁교육 마쳐
- 공사 53기생 200여명 소위 임관

박씨 부부는 다이텝 소위를 친자식처럼 대했고 다이텝 소위는 예비역 공군 중위(사관후보생 75기)로 공군 대선배이기도 한 박씨를 아버지처럼 따랐다. 박씨는 곧 태국으로 떠날 양아들의 졸업 선물로 자비를 들여 다이텝 소위의 어머니 등 가족들을 초청해 자랑스런 아들의 계급장을 달아주도록 배려했다.

다이텝 소위는 공사에 첫 입교해 교수나 교관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엉뚱한 행동으로 동기생들을 웃기곤 했지만 박씨 부부와 생활하면서 언어 장벽을 극복, 4학년 1학기 때는 학업우수상을 받았다. 동기생들은 지난해 태국의 일부 지역이 쓰나미 피해를 겪자 성금을 모금해 다이텝 소위에게 전달하는 진한 우정을 보여줬다.

수려한 외모로 공사 '얼짱' 인 다이텝 소위는 공사 홍보용 화보와 달력의 모델로 발탁되기도 했고 이러한 공로로 졸업식에서 공로상을 받았다.

박씨는 "이역만리 타국에서 힘든 4년 간의 생도생활을 마치고 계급장을 다는 것을 보니 자랑스럽다"며 힘찬 박수를 보냈다.

공사 53기로 입교한 뒤 1학년 재학 중 미국 공군사관학교 위탁교육생으로 선발된 정양운(23, 미 공사 3학년) 생도는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13시간을 날아와 동기생들의 졸업을 축하해 눈길을 모았다.

이날 졸업과 동시에 소위 계급장을 단 53기생 200여 명은 조종, 정비, 관제 등의 특기를 부여받고 공군 부대에 배치돼 초급장교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제57기 사관생도 입교식 거행

공군사관학교는 19일 오전 신입생, 학부모, 생도 등 2천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무연병장에서 제57기 사관생도 입교식을 가졌다. 이날 입교식은 입교신고, 교장훈시, 분열 등에 이어 선배생도들이 신입생도들에게 생활도구 등을 전달하는 '메추리관습 이양식' 이 있었다. 신입생도들은 지난 1월 15일 가입교해 5주간의 강도높은 교육훈련 및 체력 · 정신훈련을 받았다.

한편 이날 태국의 온 챠트리(23) 씨가 위탁교육생으로 입교했고 정현승(19) 군과 서영민(19) 군이 형에 이어 입교, 두쌍의 형제생도가 탄생했다.

공군사관학교 최재동 중령, 대한수학회 논문상 수상

– 국내 최대 수학단체인 대한수학회에서 탁월한 연구업적 인정받아
– 2004년 공군을 빛낸 인물로도 선정된 바 있는 인재

공군사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최재동 중령이 4월 23일(토)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에서 개최된 '대한수학회 연구발표회' 에서 논문상을 수상하였다.

2,500여명의 회원을 둔 대한수학회는 한국수학올림피아드 개최와 각종 학술발표회를 통해 수학의 저변 확대에 기여해온 국내 최대의 수학 단체이다. 대한수학회 논문상은 대한민국 국민 중 지난 3년간 국내외에 발표한 논문으로 그 탁월성을 인정받은 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이번에 최재동 중령은 '04년 2월 「美 수리 물리학 저널(Journal of mathematical physics)」 에 게재된 「비선형 우주진화」라는 논문으로 상을 받게 되었다. 이 날 수상자 특별강연을 통해 최 중령은 "국내 유수 대학의 훌륭한 학자들 중에서 이처럼 큰 영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교장님 이하 학교 성원들이 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한 덕분"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더욱 연구에 힘써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에 기여하고 싶다" 며 포부를 밝혔다.

공사 32기로 미국 미주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공사 교수부 수학과장으로 재직 중인 최 중령은 제37회 과학의 날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등 우주론 분야의 권위자로서 왕성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으며, 2004년 공군을 빛낸 인물(신지식인 부문)로 선정된 바 있다.

공군사관학교 개교 56주년 기념행사 개최

– 개교이래 처음으로 공사 총동창회 회원 초청하여 기념행사 실시 –

공군사관학교는 개교기념일인 6월 10일 사관생도 및 공사 총동창회 회원, 장병,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교 56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특히 올해는 공사 출신 동문들간의 우애와 화합을 증진하기 위해 개교이래 처음으로 공사 총동창회 회원들을 초청, 1기 졸업생부터 현 1학년 생도까지 한 자리에 모이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되었다.

제56주년 개교기념식에 참석한 생도와 장병들

개교기념일을 맞아 모교를 방문한 선배들 앞에 늠름한 모습으로 도열한 생도들

한편, 개교기념행사를 마친 공사 총동창회 회원들은 생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내무반 견학을 하는 등 과거 자신의 생도시절과 지금의 생도생활을 비교하며 감회에 젖기도 했다.

1949년 6월 개교 당시 한국전쟁이라는 국가적 시련을 극복하고 정예 보라매를 양성하는 요람으로 그 위치를 확고히 한 공군사관학교는 도전과 극복의 56년을 되새기는 뜻깊은 기념행사들을 통해 미래와 세계로의 도약을 다짐하고 있다.

김명립 학교장이 개교 기념식사를 하고 있다.

최규순 공사 1기 동기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개인 홈페이지 소개 김성곤(2기 사관)

http://user.chol.com/~psgkim/

김성곤 예비역 공군준장

머리말

나는 군과 교육과 사업관계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일본, 싱가포르, 홍콩, 대만, 러시아,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 레바논 등 전 세계의 많은 나라를 두루 다녀보고, 그 곳에서 살아보기도 했다. 내가 미국에서 보낸 시간만도 합쳐서 4년은 넘을 것이다. 세계의 각 나라를 다녀 보고 가장 절실하게 느낀 점은 이들의 생활 태도나 사고 방식이 우리 나라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었다. 좀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 사람들의 생활 태도와 사고 방식이 어느 정도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높은 공중 도덕의 수준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 나라 사람들의 행동과 사고 방식은 국제적인 상식적 관례와 도덕 기준에 비하여 너무나 동떨어지고 관례에 벗어 나는 점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의 넓은 무대에서 떳떳하고 의젓하게 세계의 여러 나라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각자의 분야에서 마음껏 각자의 역량을 발휘하고, 또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많은 외국인들의 호감과 존경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다시 이 나라를 찾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천하여야 할 사항들만을 적었다.

대체로 그 사람들은 서두르지 않고 급하지 않고 사고와 행동에 여유가 있다. 그들은 자기를 생각하기 전에 남을 먼저 생각한다. 남에게 폐가 되는 행동은 자기에게 고통이 되더라도 그들은 하지 않는다. 남을 돕는 일에, 특히 약한 자

와 거동이 불편한 자를 돕는 일에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선다. 한마디로 말하여 그 나라 사람들은 남과 더불어 살려고 애쓰는 것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나 독불장군이고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이다.

이래서는 앞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치외교, 경제, 무역, 군사, 사회적으로 온 세계를 상대로 하여 큰 활약을 하지 않으면 안될 시기에 아무에게도 받아 들여지지 못하는 외톨이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심각한 생각마저 들게 된다.

나는 건강이 좋지 못한 70이 넘은 늙은이이다. 하느님과 여러 친지, 친구, 의사의 간절하고 각별한 기도와 보살핌의 덕으로 아직 살아 있기는 하나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른다. 내 나름대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내 한 평생을 통하여 얻은 지식과 경험과 판단을 아무에게도 남겨 주지 못한 채 세상을 뜨게되면 그 동안에 들인 노력과 시간과 얻은 체험이 너무나 아깝다는 생각에 이 글들을 남기려는 것이다.

수 십 년에 걸쳐 보고 느끼고 배운 것을 흐려지는 기억을 더듬어 가며 적는 일인지라 두서없는 말이 될지도 모르고 너무나 사소한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의 넓은 무대에서 떳떳하고 의젓하게 세계의 여러 나라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각자의 분야에서 마음껏 각자의 역량을 발휘하고, 또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많은 외국인들의 호감과 존경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다시 이 나라를 찾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천하여야 할 사항들만을 적고자 하니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방문자에게 한가지 당부 드릴 말은 본 사이트는 번쩍번쩍 눈에 뜨이는 글과 그림만을 보고 지나가도 되도록 편집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너무나 많은 내용이 좁은 공간에 들어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빠짐 없이 읽어 주기를 바란다.

PRESIDENT'S MESSAGE 유재호(3기 사관)

소개 : 3기 사관 유재호 동문은 현재 Hawaii 소재 "The Center for Asia-Pacific Exchange"의 총장직을 맡고 있다.

Jai-Ho Yoo, President

The Center for Asia-Pacific Exchange was founded with a unique vision: that citizens of all the countries of the Asia-Pacific area, not just those of one country or one corporation, would come together in support of the ideal of solidarity and cooperation across barriers of language, nationality and history. The global citizen envisioned by CAPE is one who appreciates diversity, who is able to collaborate harmoniously with people from many cultures, based on a spirit of mutual respect and friendship, and who enriches our world by contributing on both a personal and professional level to shaping the global village.

Since its founding in 1980, CAPE has provided professional training, academic seminars, cultural orientation and language courses to over 7,000 citizens from countries of the Asia-Pacific area, as well as to over 2,000 local Hawaii residents. CAPE continues to build a network of cooperative relationships with educational and health care institutions which serve the region's people, and by the time CAPE celebrates its twenty-fifth anniversary in the year 2005, I foresee that our Center will be recognized as one of the leading institutions providing cross-cultural training and international exchange opportunities in the Asia-Pacific region.

The range of programs offered by CAPE is unique to the Asia-Pacific region in both diversity and scope. CAPE's major programs are the American Studies Forum, the Asia Today Series, the Language and Culture Seminars, the English Teachers

Workshop, a variety of nursing and health care-related programs, leadership training seminars for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 employees, and a regular series of English language courses of various levels and duration.

Each CAPE program has a particular focus, but what all the programs share is a unique blend of components available nowhere else: classroom sessions, language learning, individualized cross-cultural activities, personal interaction with American people and, when appropriate, on-site professional development at cooperating institutions in Honolulu.

Because CAPE sets itself the ambitious goal of providing not only language training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but also the cultivation of cross-cultural interpersonal skills, every CAPE program, whatever its primary focus, incorporates face-to-face interactions with local community members or with people from other countries. The goal is for CAPE participants to learn cross-cultural interactional skills by having opportunities to practice them in a friendly and supportive atmosphere of contacts with the "real world" beyond the classroom. This interactive community component is considered an essential complement to the classroom activities and the instructional faculty bridge the two by regularly asking participants to complete assignments based on interactions with the community.

Another component of CAPE's programs is the goal of preparing participants to present themselves and their respective countries to others, in order to better communicate with people from other cultures. It is my belief that as individuals are better able to communicate about themselves and their countries and articulate their values, they will more easily be able to establish friendships and relationships with others. Activities which further this goal are integrated into regular classroom sessions in all programs.

In keeping with the goal of promoting global thinking, another unique component of CAPE programs is that participants are encouraged to learn about one additional country beyond the U.S. Program time and special sessions are devoted to the exploration of some facet of countries selected for study by program participants.

A measure of the positive and lasting impact achieved by CAPE's programs is reflected in the achievements of the many former participants who draw on their CAPE training to serve not only as models of excellence in their diverse fields at home, but also to contribute to moving their countries forward to meet the challenges of the new century.

Looking forward, the growing network of CAPE alumni all over the Asia-Pacific region will be playing an increasingly important role in CAPE's mission, advising on the development of relevant new programs and facilitating increased institutional exchanges.

The recently acquired CAPE Home, where Asia-Pacific scholars may find short-term accommodations while in Honolulu to undertake research projects and other scholarly activities, is also expected to provide increased opportunities for Asia-Pacific citizens to meet and exchange not only academic ideas but also personal views of life experiences. The hope is that the CAPE Home, by providing a forum for exchanges at a personal level among scholars from the Asia Pacific region, will help generate tolerance and understanding and create new bonds of friendship and solidarity.

Ultimately, CAPE hopes to contribute significantly to the goal of producing globally-minded citizens who can communicate heart-to-heart with people from other cultures, who can work hand-in-hand with people around the world, who can appreciate differing values, and who contribute to the communities in which they live by serving as role models and catalysts for the spread of these values. It is my fervent hope that every participant in a CAPE program will be enriched by their CAPE experience and will become a torch bearer to brighten the world of the 21st Century.

공군장병 헌옷 모아 불우이웃 돕기

공영화(7기 사관)

– 제주도에서 봉사하는 삶

공군부대 장병들이 모은 헌옷이 제주도의 불우 이웃들과 아프리카, 동남아 지역의 빈민들에게 전달되고 있어 화제다.

이같은 구호활동은 제주시 이도2동 제주누리교회(목사 이경곤)의 '사랑나눔운동' 이 재정사정으로 한계점에 부딪쳤다는 소식을 공군 장병들이 전해듣고 적극 동참하면서 불길처럼 번지게 됐다.

이 교회에 다니는 공군 예비역 소장 공영화(공사 7기) 씨가 지난해 4월 '사랑과 나눔의 SOS' 를 옛 전우들에게 보내자 제30방공관제단을 비롯, 교육사령부, 제3훈련비행단, 제5전술공수비행단, 군수사, 공군사관학교 등에서 발벗고 나선 것이다.

공군 가족들이 이렇게 모아 제주도까지 수송기편으로 틈틈이 보내온 옷은 모두 8천여벌.

제주누리교회는 이들 옷 가운데 수십박스를 골라 선교사가 파견된 아프리카와 동남아 등지로 보내 빈민들에게 나눠줬으며 나머지는 '공군지원 알뜰매장' 인 '제주누리교회 부띠크' 에서 판매하고 있다.

알뜰매장 운영자는 "'공군의 사랑' 이 외부에 알려지며 옷들이 하루 수십벌씩 날개 돋친듯 팔려 7개월간 1천만원의 판매액을 기록했다" 며 "수익금을 도내 무의탁 노인, 소년소녀 가장, 결식아동 등 모두 35명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군 제30방공관제단 관계자는 "제주에 보낸 옷들이 모두 판매와 구호활동 등으로 소진될 경우 다시 헌옷 수집운동을 펴겠다" 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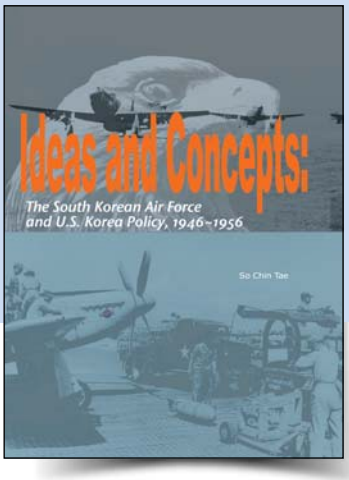
공사인에 관한 신간(新刊)소개

서평 · 편집인 정민남(12기 사관)

제　목 : 역사를 알면 세계가 보인다(Western Heritage Beyond)
저　자 : 최영민(3기 사관)
펴낸곳 : 한국문원(2004년 12월 15일 초판발행)/758쪽
저자 소개 : 미국 Sandiago 거주, 미국 Foot Hill College, San Mateo College에서 전자공학 전공. 미국 Physical Electronic Laboratory. Addington Laboratory. Watkins-Johnson Company 등 첨단 전자회사에서 Microwave Engineer, Manager로 근무

서평 : 저자는 30년 동안을 미국에 살며 세계 최강국 미국에 대한 부러움과 분노가 교차하는 가운데서 조국의 현실을 생각하고, 분단 조국의 현실 타개를 위한 교훈을 서구문명의 역사를 통한 탐구에 나선다. 정년 퇴직 후에 10여년 동안 계속된 서구문명의 역사탐구 과정이 바로 그러한 작업이다. 근대의 세계사가 서구 문명으로 장식되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 못할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다.

저자는 서구 문명의 역사에서 그들의 발자취를 개관(槪觀)하며 그 역사 안에서 우리가 찾을 것은 무엇이고, 버릴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시각을 가진다. 서구 역사를 통해 배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조건도 조국의 민주적 통일이라는 대 과업의 성취를 위한 잣대로 보는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을 조국의 현실에 그들의 역사에다 투영(投影)하여 우리의 미래를 비추어 보는 작업으로 하고 있다. 부록에는 한국에 대한 미국 언론의 왜곡된 보도를 보고 항의하는 서한 및 기사, 그에 대한 언론사의 사과문, 미국 대통령(Reagan) 및 Edward Kennedy를 비롯한 상원 의원들에게 보낸 개인적인 편지와 그에 대한 답신들이 포함된다.



제 목 : Ideas and Concepts: The South Korean Air Force and U.S. Korea Policy, 1946~1956 by So Chin Tae, Ph.D.
미국의 한반도정책과 한국공군의 사상과 운용개념, 1946~1956
저 자 : 서진태(8기 사관)
펴낸곳 : 공사출판부/349쪽/비매품

서평 : 한국공군은 태생적으로 미국 한반도 정책의 엄격한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했다. 미국의 무상군원에 의존하여야 했던 1974년 이전까지는 말할 것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미국의 세계전략의 제약 속에서 한국공군의 성장이 의도적으로 제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즉, 미국의 시각에서는 한국공군의 존재이유를 평시에는 한반도에 있는 비행장과 레다 등 비행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단지 상징적인 전력(a token force)으로 보고 유사시 미 공군의 증원전력이 도착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전력(a holding force) 수준으로서 적당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미국의 일방적인 정책과 이에 편승한 육군출신 위주의 한국의 정치적 리더십의 등한(inattention)으로 인해서 현재와 같은 방만한 지상보병 중심의 기형적인 국군의 구조가 방치되어온 것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아니다. 저자는 한국공군의 탄생, 한국전쟁참전 그리고 휴전 직후 제트전투기(F-86F)로의 현대화 등 초기 10년간(1946~1956) 한국공군의 사상과 운용개념을 미국의 한반도 안보/군사정책과 연계하여 국제정치학적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한국군 특히 한국공군의 사상과 개념에 관하여 처음으로 저술된 것이어서 학술적 가치가 높다. 주한 외국무관부를 비롯해서 미국의 각 사관학교와 군 대학(War Colleges 및 Armed Forces University), 그리고 심사(qualification review)를 거쳐서 U.S. Congressional Library(국회도서관)와 U.S. National Museum(미국국립박물관)에도 비치하게 되어 한국공군의 학술적 해외홍보에도 기여하게 되었다.

바라고 싶은 점은 영문판이라도 일반 독자들이 일반서점에서 구독할 수 있도록 상품화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더불어 한글 번역판이 조속히 출간되어 많은 독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바란다.

제 목 : 장군들의 리더십
저 자 : 조성식(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펴낸곳 : 늘푸른 소나무/302쪽

서평 : 지금 이 시대가 그 어느 때보다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서점가를 둘러보면 알 것 같다. 굳이 통계 수치를 빌릴 필요도 없이 리더십에 관련된 책들이 서점가에 지금처럼 범람한 적이 있었던가? 수없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 리더십 번역서들을 제외하더라도 국내에서 저술되어 나오는 리더십 관련 책들도 심심치 않게 눈에 많이 들어온다. 이런 현상은 리더십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이 사회에 급증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시대에서 보고 있는 치열한 경쟁현상이 바로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요구도 날로 경쟁적으로 더욱 상승세를 타고 있다.

생각해 보면 이 시대를 사는 사람으로서 경쟁의 범위 밖에서 안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수도자들이나 세상이 싫어 초야에 은둔한 사람들을 제외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거의 모든 사람들이나 조직들이 경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가고 있음을 말해준다. 경쟁 조직이 아닌 자선 단체의 조직에서도 역시 훌륭한 리더십은 경영의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고 보면 리더십에 관한 관심의 고조(高潮) 현상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리더십하면 먼저 군(軍)이 떠오르고, 그 중에도 군의 지휘관이 먼저 떠오른다. 아마도 군은 지휘관에 의해 움직이는 가장 표본적인 조직이기 때문일 것이다. 군은 이겨야만 할 존재이며 이겨야만 할 조직이다. 군은 리더십을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조직이다. 리더십은 군의 승패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9명의 장군들(육 · 해 · 공군) 리더십 사례들을 다루고 그 사례들 안에서 경쟁에서 성공하고 이길 수 있는 교훈을 찾고 있다. 그것이 이 책을 저술한 저자의 의도이다. 그 사례들 중에 공사 출신 배양일 장군(12기 사관)과 이진학 장군(18기 사관)의 사례들이 포함된다.

배양일 장군 편에서는 청와대 공군 연락관 시절의 아웅산 테러사건에서 보여준 드라마틱한 대통령 일행의 탈출, 귀환, 착륙의 성공 사례, 3군사관학교 중에서 최초로 공군사관학교의 여생도 입학 제도의 추진 이야기, 작전사령관 시절 예하 지휘관들에 대한 "부드러운 강요"의 성공사례, 바티칸 교황청 대사 시절에 교황만이 사용할 수 있는 통로를 우리 대통령이 역대 바티칸 방문 국가 원수들 중에 최초로 사용할 수 있게 한 막후 작전 성공사례 등이 흥미롭다. 바티칸 박물관(세계 3대 박물관)의 한국 민속전시실 설치에 대한 성공적인 추진이야기가 빠진 것은 저자의 실수처럼 보이는 아쉬운 대목이다. 이진학 장군의 사례는 비행단장 시절, 북괴의 MIG-19 귀순기의 착륙 사건을 통해 본 준비된 성공의 이야기, 공군본부 전투발전단장 시절, IMF라는 최악의 조건에서 국제행사인 서울 에어쇼를 성공적으로 계획하고 집행한 사례, 국산 고등훈련기 T-50 개발 및 시험비행 성공사례를 다루고 있다. 공사인의 일독을 권한다.

제　목 : 즐겁고 자신있게 시작하는 2막
(제대군인들의 사회적응을 위한 제언)
저　자 : 금기연(21기 사관)
펴낸곳 : 솔빛별가족/336쪽

저자 근황 : 한국리더십센터 전문위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방자문위원.
전역을 앞둔 장병들의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 워크숍 주관

서평 : 공사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공사인이라면 누구에게나 항상 마음 속에서 떠나지 않은 하나의 문제의식일 것이다. 이 책은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실천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해도 과장은 아니다. 공사인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보기에 좋은가 하는 모습들이 책을 보는 중에 동의(同意)를 불러 일으킨다. 많은 대목들 중에 하나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희망을 찾고 할 일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을 주는 것이 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삶에 대한 최상(最上)의 태도라는 어느 분의 말을 연상(聯想)시킨다. 이러한 태도는 분명 보편적 삶의 가치를 향해 변화해 가는 희망의 자세(姿勢)일 것이다. 그런 것으로 생각되는 모습들이 저자의 삶에서 자주 눈에 들어 온다. 그러한 단면의 한 내용을 아래에 소개한다.

생각을 바꾸면 길이 보인다(본문 중에서).

2막은 새로운 기회이다. 비록 어쩔 수 없이 시작하는 2막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축복이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다 기회이자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니다. 오로지 군 출신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만이, 그렇게 생각을 바꾼 사람만이 가능하다. 평생을 조국을 위해서 일했건만… 하며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에게는 2막이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재앙으로 변하여 자신을 삼켜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중략) 그래서 즐겁고 신나는 2막이 전개될 것이다. 건강, 인내심, 용기, 실천력, 프로정신, 인간관계, 적응력, 퇴직연금, 자제력, 공경심, 조직에 대한 충성심 등 너무나도 많은 것을 얻게 해 준 군 생활에 감사하자. 이미 우리가 가진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

만 학 유 감(晩學有感)

서진태(8기 사관)

"서 장군, 자네 왜 이래? 어쩌자고 이러나?"

1992년 3월, 당시 D증권회사의 런던 책임자로 나와 있던 내 고교 동창 K가 런던대학(University of London) 기숙사(Lillian Penson Hall)로 나를 찾아와 내 꼴이 한심스럽다고 내뱉은 책망이었다.

내가 들어있던 기숙사는 우중충한 시멘트 건물에 세 평 남짓한 방으로 철 침대 하나에 낡아빠진 책상 하나, 방구석에는 금방 쥐가 기어 나올 것 같은 곳이었다. 방밖의 샤워장과 식당에서 만나게 되는 학생들은 내 아들보다 어린 젊은이들뿐이었다. 어떤 학생들은 호기심이 차서 나를 바라보기도 하고 저희들끼리 수군대기도 한다. 아마 이런 나의 상황을 '앤타이 클라이맥스'라 하는 것일 것이다. 멀쩡하게 차려 입고 점잖게 걸어가다가 바나나 껍질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진 사람 꼴이 된 것이다.

런던으로 찾아와 내가 사는 이런 모양새를 본 아내도 내 동창과 같은 책망을 했다. "갈수록 태산이란 말은 있지만 해도 너무 한다"면서 고국의 친지들은 회사 하나 맡아달라고 기다리고 있던 좋은 일자리까지 버리고 그 나이에 박사학위는 무엇에 쓰려고 하느냐고 비웃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나는 아무에게서도 축복 받지 못하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초기에 이런 상황은 "서진태 생도정신"을 되살려 극복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공부가 시작되면서부터는 사실상 먹고 입고 자는 환경문제는 관심 밖이었으니까.

나를 당혹시키는 것은 그런 외적 생활조건이 아니고 공부 그 자체였다.

지도 교수는 처음부터 불안하게 만들더니 일년 반쯤 지나서부터 나에게 주는 힐책은 나로 하여금 뼈아픈 한계를 느끼게 한다. 한계는 물론 나 자신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나의 연구테마는 미국의 한반도 안보정책과 초기 한국공군 변천과의 상관관계였는데, 내가 쓰고 싶은 것과 軍을 잘 모르는 지도교수의 견해와 자주 충돌을 일으키곤 했다. 이런 상황은 논문 작성 진행에 상당한 지장을 주었었다.

자료를 찾아서 배낭 하나 짊어지고 영국과 미국 전역에 퍼져 있는 수많은 연구소와 도서관을 찾아 다녀야하는 생활이 시작되었다.

일년 반 넘어 내놓은 첫 번째 초안은 보기 좋게 퇴짜였다. 지도교수 말이 논리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아니올 시다"라는 것이다. 또 일년 더 걸려 다시 구성한 두 번째 초안을 제출했다.

"미스터 서, 한국공군에서 3성 장군까지 되고, 많은 성취를 한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지요. 그러나 학문의 세계는 다릅니다. 그 나이에 학문적 성취까지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요" 즉, 석사학위로는 훌륭한 논문이니 그쯤 끝내고 돌아가라는 뜻이었다.

그러니까, 이미 밝혀진 문헌과 사료(史料)를 정리해서 자기의 논리를 입증하는 수준인 석사학위(M. Phil)로는 충분하지만, 그러한 석사학위 요구량 위에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역사적 사실을 찾아 이를 바탕으로 논리를 세워야 하는 박사학위(Ph. D.)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젠 앞길이 막막했고 심신은 지쳐 있었다. 기대와 의욕에 차서 나 자신을 바라보았던 나의 초심이 무색하다. 이제 한국공군이 창군 40년이 지났는데도 기형적인 군구조속에서 공군력의 성장이 여전히 억제당하고 있는 배경을 국제정치학적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하는데 그 일을 내가 해야겠다고 자처하지 않았던가.

누구를 위해서 이 고생이냐고 책망을 하는 아내를 향해서 어차피 내 별명은 "바보생도"이고 내가 하려는 이 "바보스러운 일"은 언젠가 우리 공군에서 또 생길지도 모르는 나 같은 "바보생도"를 위해서 해야 한다고 말했었고 아내도 이런 나의 자세를 인정하겠다고 말해 주지 않았던가.

그런데 나의 이러한 자존심이 벅찬 고비를 만난 것이다. 아내의 얼굴이 떠오른다. 지금 상황을 이해받고 싶었다. 그러나 나의 하소연을 들은 다음 써 보낸 아내의 편지는 냉혹했다.

"Do not come home without the Ph. D."라고 시작한 그녀의 말은 이제 와서 박사학위를 못한다는 것은 중장 별 셋이 외국에 나가 떠돌이 하다가, 런던대학이라는 항성(恒星)에 부딪쳐 산산조각이 나는 꼴이란다. 사업에 비교하면 이익은 고사하고 본전까지 잃어버리는 격이라는 것이다. "군에서 장군 진급 때마다 일차에서 밀려났던 것은 현실을 탓할 수도 있지만 박사학위의 실패는 당신 자신밖에는 탓할 대상이 없다"라는 것이다. 그리고는 학위를 받지 못하면 집에 오지 말라고 말하면서 편지를 끝냈다.

어쩌란 말인가. 막다른 골목까지 쫓겨 들어갔다가 어쩔 수 없이 돌아서서 칼을 휘두르는 전사(戰士)처럼 나는 리서치에 다시 매

달릴 수밖에 없었다.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것은 더욱 부차적인 일이 되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역사 자료를 찾아서 영국의 각 대학과 대영도서관은 물론이고 한국전 당시의 미국공군고문관들의 행적을 쫓아 미 공군역사연구본부, 미 국립사료기록관리청, 미 국회도서관, 트루만과 아이젠하워 대통령 기념도서관의 사료실(史料室) 등 수많은 곳을 뒤지며 다녔다.

일반 독서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박사학위를 위한 리서치를 한다는 것은 필요한 것을 새로이 알게 되는 과정이라기보다 내가 그 동안 무엇을 모르고 살아왔나를 확인하는 과정과 같이 된다. 학위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생이 이렇게 깨달은 것은 계속 학문이라는 함정에 빠지는 것 같고 책 읽기의 늪 속을 헤매는 것 같기도 했다. 몇 달 동안을 주석(註釋) 하나와 씨름 하느라 내 자신이 말하고 싶은 논리는 까맣게 잊어버리기도 했다. 예를 들면 이승만 대통령의 한국공군력에 대한 관심을 입증(지도교수의 요구)하기 위한 역사자료를 찾느라 미 공군역사연구본부를 세 번 방문 끝에 미 공군고문단이 1948년에 미 극동공군사령부를 위해서 모조지에 수동타자기로 작성한 빛바랜 보고서의 한 귀퉁이에서 겨우 찾아냈을 때의 감격은 아직도 생생하다. 특히 리서치 과정을 학생 자신에게만 맡겨두고 결과만을 평가하는 영국의 학위제도는 연구생이 잘못 궤도를 벗어나 무한정 혼자서 흘러가 버릴 경우도 있게 된다.

아마추어 원예가인 아내는 영국뿐 아니라 유럽대륙에서 열리는 원예전시회를 모두 가보겠다고 런던으로 와서는 나도 휴식이 필요할 테니 같이 가자고 조른다. 나는 책을 들고 그녀의 뒤를 쫓아다닐 수밖에 없었다. 아내는 "앉아서도 자고 서서도 자는 사람이 왜 책을 들면 잠을 안 자느냐"고 구박이다.

미국에서는 공군역사연구본부와 인접한 공군대학도서관을 수시로 찾았었는데 책장 앞에 서서 무한정 읽고 있는 나에게 숫제 책 진열장 구석에 책상 하나와 의자를 내 몫으로 놓아주기도 했다.

모든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특히 미국공군의 입장에서 한국공군은 아주 미미한 존재였기 때문에 미 공군의 한국전쟁 전사기록 속에 한국공군은 간헐적으로 언급될 뿐 하나의 별개 테마로서 취급된 일이 없다. 따라서 나의 리서치는 영어로나 한글로나 학술적으로 처음 정리한 미국의 한반도 안보정책 속에서 이루어진 한국공군의 초기변천 과정이었기 때문에 미국공군은 이러한 의미를 미리 인정했고 처음부터 끝까지 지원하면서 나의 리서치를 주시했었다.

거의 일년이 더 걸려서 마침내 제출한 학위논문 최종안은 지도 교수의 별다른 잔소리

없이 구두시험(viva voce 바이바 보체)으로 넘겨졌다(1996. 5. 14.). 지도교수는 심사위원들이 내가 3성 장군 출신이어서 필경 보좌관을 두고 대필시켰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웃었다.

'바이바'는 두 시간 이상 强行되었다. 그러나 그곳은 나의 무대였다. 심사위원들은 모두 국제분쟁과 전쟁연구 학자들이었지만 나와 같은 이 분야 전문직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어서 그들의 질문에 대한 나의 입체적 답변이 오히려 생동감 있는 새로운 관점으로 전달된 것이다. 심사가 끝나고 심사위원장이 나의 합격을 선언하자, 임석했던 지도교수는 개선장군이라는 찬사를 하면서 축하해 주었다(. . . passed the viva voce with flying colours.). 그러나 내 논문의 학문적 가치를 인정해 준 런던대학의 평가보다도, 그리고 제일 먼저 축전을 보내온 당시 미국공군참모총장 포글맨 대장의 축하보다도, 언젠가는 나를 이어서 후속 연구를 할 제2의 "바보생도"가 내 논문을 참고하게 될 것을 생각하며 나는 기뻐했을 뿐이다.

그리고 나는 집에 돌아갈 자격을 얻은 것이다.

공사인, 무엇이 그 정체성인가?

총동창회 사무총장 정민남(12기 사관)

공사인의 정체성은 무엇이며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공사총동창회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도 그 모습이 확연히 떠오르지 않아 그것을 탐색해 보고 싶은 마음으로 그 여정에 오른다.

한 나라가 산업국가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사회 간접자본인 도로망의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미국이 한때 도로(道路) 구축에 국방예산 다음으로 큰 비중을 두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인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은 남북 전쟁(1861~1865)에서 공업이 발달한 지역의 북부군이 농업 중심지역의 남부군에 승리함으로써 산업자본주의 체제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 계기의 상징적 원년을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대륙횡단 철도가 완성된 남북전쟁 4년 후인 1869년으로 그 기점(基点)을 삼고 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박정희 대통령 때 이룩한 1970년도의 경부고속도로의 개통이 한국의 본격적인 산업 경제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문턱이 되는 기점이라고 볼 수 있다.

공군사관학교의 고속도로는 어디에 있는가? 있다면 잘 닦여져 있는 것인가? 그 길을 찾는 것은 공사인의 정체성을 찾아 보고 싶은 마음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그 길을 찾아 나서는 글을 쓰고 있다. 총동창회는 전 회원을 결합하고 참여시켜 활성화시키는 통로(通路)이며 장소이다. 그곳에서 동창회원 상호간의 교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다.

공사인의 정체성, 그 근원은?

이 통로를 지나가는 교통의 내용은 공사인의 윤리(倫理)에 뿌리를 두고 삶을 살아가는 공사인의 정신과 삶의 모습이 교차되는 흐름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 흐름으로 공사인의 정체성이 드러나야 할 것이다. 그 흐름은 공군사관학교에서 얻어진 공사인의 의식세계와 그곳의 문화에서 나온 정신적 가치의 흐름으로 가득차야 한다. 다시 말해 그것은 공군사관학교 교육이 준 공사인 특유의 윤리에

근거한 정체성에서 흘러나오는 맑은 샘물이어야 한다. 바로 그 샘물의 근원은 '조국과 하늘에 몸과 마음을 바친다'는 공사인의 국가에 대한 희생정신과 봉사하는 삶에 있다.

그 샘물은 어디로 흘러가는가?

공군사관학교 생도생활을 통해 다져진 공사인의 정체성은 공군에서의 삶이 끝난다고 접어질 수 있는 것인가? 아니다. 그 정신은 자랑스럽고 엄격한 명예심(名譽心)과 생도생활에서 길러진 정의로움에 근간을 두고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공사인의 공통적인 삶에 대한 의식이고 가치이며, 그 가치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 우리를 지탱해 줄 것이다. 공사인의 삶은 그 문화 속에서 계속 성숙해 갈 명제이다. 그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관통(貫通)하는 하나의 흐름이 되어 정화되고 성숙해 갈 것이다. 그것은 개인적인 성취와 발전에 의(義)로운 삶의 동력(動力)으로 작용하는 힘이 되어 줄 것이다.

이와 같은 공사인의 의식과 명예심은 선후배 상호간에 교차되는 나눔을 통해 공유할 가치를 갖게 된다. 이 가치(價値)가 계속 후배들로 이어져 소중한 정신적 유산(遺産)과 전통(傳統)으로 형성해 가는 관계 속으로 흘러들어가야 한다.

그 샘물이 갖는 특성들은?

공사인 개개인의 발전과 성취의 배후에는 바로 이와 같은 공사인의 윤리에서 형성된 의식(意識)의 산물(産物)이 있어야 한다. 개인의 발전과 성취가 정의롭지 못한다면 그것은 공사인의 정체성에 반(反)하는 것이다. 그 발전과 성취는 공사인 특유의 의식과 명예심이 반영(反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배우고 익힌 지력(智力)과 체력(體力)과 덕행(德行)과 용기(勇氣)는 지도자로서 살아가는 자질로서 공사인의 역동성으로 사회적 공동 선(善)을 창조하고 성취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지도자는 인간의 보편적 공동선(善)을 추구할 때 진정으로 성공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공사인의 리더십도 바로 그런 과정의 추구에 바탕을 두고 발휘되어야 할 것이다. 그 성취의 과정이 공사인의 보편적 문화 형성의 특성이 되는 것이다.

공사인의 정체성에 대한 그림은 공군사관학교의 교육정신으로 살아가는 공사인의 보편적 문화 안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의 산물(産物)로 합성(合成)되고 공사인 개개인의 책임 아래 공동으로 완성되어야 할 공사인의 생활상(生活像)이다. 따라서 공사인은 공군

에서 출발하여 국민과 국가에 대한 봉사의 삶으로 보편적 가치를 창조하고 그러한 삶의 가치를 영속적으로 지켜가야 할 사람들이다.

공사인은 그 이상과 현실의 터전을 하늘에 두었기에 그 지향하는 바가 높고 열려있어 무한(無限)하다. Globalization이란 공군이 활동하는 공간의 무한(無限)성과 개방(開放)성의 시대적 표현이기도 하다. 공사인의 마음과 정신은 하늘처럼 열려있어 세상 일을 수용(受容)하는 데 긍정적이고 자유롭고 민첩하다. 공사인은 새로운 선진 사상, 새로운 선진 문화, 새로운 삶의 가치에 대해 감각적 수용능력이 풍부하다. 이런 성향은 신선함과 투명성과 개방성이 주는 공사인의 환경적 특성에서 길러지는 것으로 변화의 환경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 하나의 우월성(優越性)이 된다. 이 우월성은 공사인의 문화에서 형성된 감각적으로, 관습적으로 발달한 소산(所産)이다.

이러한 환경으로 길러지는 공사인의 정체성은 공사인의 윤리와 더불어 봉사와 희생하는 삶의 선택으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야 하고, 그 행적(行跡)도 정의로운 과정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사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선택의 결과도 공동체의 긍정적인 인정과 선망(羨望)의 명예로운 대상이 되어야 한다.

공사인의 언(言)과 행(行)은 보편적 가치의 대표성을 가져야 한다. 그 대표성의 근간은 인류애(人類愛)에 두어야 하고, 인류가 지향하는 공동선은 공사인의 높고 원대한 이상이고 현실이 되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창조하는 과정에서 표현되어야 한다. 사랑은 공사인에게 최상의 동기부여가 되어야 한다. 사랑 외의 어느 것도 공동체의 자발적인 움직임과 진정한 자유의 참여를 끌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인간애는 우리 공사인이 지향해 가는 하늘과 같은 것이다. 그 어떤 리더십도 인간에 대한 사랑과 믿음과 관용과 진실함을 갖추지 못한다면 허상(虛像)의 그늘에 가려지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공사인의 리더십은 사랑과 진실에 바탕을 두고 공동선을 성취하는데 필요한 도구로 사용되는 능력이 되어야 한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정직성을 지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공사십훈(空士十訓)은 공사인의 덕목(德目)이고 윤리(倫理)이며 그것을 생활하는 것으로 공사인의 정체성을 더욱 뚜렷하게 드러낼 수 있다. 공사인은 그것을 속박(束縛)으로서가 아닌 자유로운 선택으로 책임(責任)을 이행하며 살아갈 때 공사인의 정체성을 성숙케 하는 데 기여한다. 공사인의 자유로움은

공사인의 몸과 마음을 지키는 윤리적 책임에서 나오는 결과이어야 한다. 진정한 자유로움은 자유인의 책임 이행에 대한 선물이며 대가(代價)이며 보상이다. 공사인의 리더십은 진실되어야 한다.

공사인의 문화는 공사인들 각자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성찰 속에 더욱 충실히 성숙되고, 그 성찰은 때로는 내면의 고통스러움을 동반하여 공사인의 정체성을 깊게 형성하게 된다. 공사인은 하늘이라는 환경에서만 가질 수 있는 Bird's Eye로 세상을 축소하여 볼 수 있는 동시에 확대지향적으로 펼쳐 볼 수 있는 비전을 가진다.

공사인의 상호 교류는 공사인의 정체성이 만나고 체험하는 것이어야 하며 그 체험은 정감(情感)으로 형성되어 공동체의 체험으로 발전해 나가는 흐름이 되어야 한다.

공사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하여 공사인은 각자 자기의 삶의 위치에서 공사인의 정체성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도 자기 표현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러한 그림을 볼 수 있는 한 가지 예가 있다. 3기 사관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의사봉을 한번은 소속 정당의 국회의장이 아닌 온 국민의 국회의장으로, 두 번째는 입법부의 의장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본분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사관학교 동기생들이 자신을 주시하는 눈초리를 의식하며 의사(議事)를 진행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고백한 적이 있다. 그는 또 국정감사 수행 중에서 갖는 회식의 자리에서도 공군사관학교의 교가를 불렀다고 말한다. 이런 것은 분명 공사인으로서 자랑스런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삶의 과정에서 개인적으로나 동기생들끼리 나름대로 공사인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확인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제 공군을 떠난 공사인의 시각에서 정체성을 정리해야 겠다. 그것은 결국 공사인으로서, 공동체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공동의 선(善)을 이루어가는 데 어떻게 봉사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자문(自問) 속에서 형성되고 성장해 갈 것이다. 이는 끊임없는 자기성찰을 통한 자기정립의 탐색과정으로 내면화(內面化)의 길을 거쳐야 한다. 자기정립(定立)의 요구는 정의로운 책임과 진정한 자유로움에 대한 행동이다. 그 배경에는 성무대(星武臺)라는 정신적 배움의 고향이 존재하고, 공통된 교육과 그곳에서 자란 공사인의 정신과 의식이 깃든 4년간의 쉽지 않은 과정의 추억 속에 자리잡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한다. 갈매기의 꿈이 있는 우리 모두의 그곳에…

한식일 여행

이봉길(18기 사관)

나는 해마다 한식일 즈음해서 부산 범어사 근처에 있는 공원묘지를 찾는다. 그 곳에는 내 나이 열 여섯 살 때 돌아가신 어머니의 산소가 있다.

금년에도 부산행 열차를 탔다. 묘지 입구 가게에서 소주 한 병과 마른안주 그리고 카네이션 한 다발을 샀다. 남향받이 넓은 묘역의 중간에 자리잡은 어머니 산소에는 화사한 꽃다발이 지키고 있었다. 비석 양편으로 개나리, 카네이션이다. 올해도 한발 앞서 막내누이가 다녀갔나 보다. 코끝이 찡하게 아파 온다. 이맘 때는 과수원 일로 눈코 뜰새 없이 바쁠텐데.

우리 집 개나리 울타리에 꽃잎이 한두 쪽씩 터져 나오던 어느 봄날, 어머니 장례식에서 언니, 오빠처럼 소리내 울지도 못하고 어깨로만 울먹였던 어린 동생. 나는 동생이 가져다 놓은 카네이션과 내 손에 든 꽃다발을 한 묶음으로 만들어 땅에 꽂았다.

성묘를 마친 뒤, 두 다리를 죽 뻗고 봉분에 등을 기대앉았다. 겨우내 눈비에 바랜 잔디의 고슬고슬한 감촉이 좋았다. 어머니의 품속 같다. 무덤이 이 자리에 말없이 있듯이 어머니도 늘 내 가슴속에 자리하고 있다. 얼마나 지났을까, 등에 냉기가 느껴졌다. 4월의 해는 짧았다. 묘지의 서쪽에서부터 산그늘이 덮이기 시작했다. 해는 범어사 뒤편 금정산을 막 넘어가고 있었다.

땅거미가 내리기 시작하는 산소를 뒤돌아보며 묘지를 나서자 나는 무엇에 쫓기는 듯 버스 정류장으로 뛰어갔다. 시내에는 친척들이 살고 있었지만, 갈 길이 바빴다. 잠시 후 노포동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경주행 버스에 몸을 실었다. 매년 봄, 나의 한식일 여행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경주는 고분의 도시다. 왜 고대 신라인들은 동산만큼 크고 높은 무덤과 더불어 살았을까?

예로부터 경주를 음(陰)의 도시라고 한다. 음이란 음양설에서 산의 음지나 강(剛)과 유(柔)에서는 부드러운 쪽을 말하며, 만물의 생성변화에서 토양이 되는 모성으로 이해된다. 지형을 살펴보면, 경주는 태백산맥의 지맥인 동대(東大), 주사(朱砂) 두 산맥으로 동서경계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사방이 구릉성 산지로 둘러싸인 분지에 자리잡고 있다. 또한,

시가지 서쪽 경계를 따라 흐르는 서천과 중심부를 가르는 북천, 반월성을 싸고도는 남천이 합류하여 형산강의 본류를 이루면서 비옥한 토양을 만들고 있다. 삼국유사에서 선덕여왕의 지기삼사(知機三事)에 나오는 여근곡(女根谷) 이야기를 들지 않더라도 경주는 음기운으로 가득하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음양의 조화를 중요시한 신라인들은 이러한 서라벌의 음기운을 다스리기 위해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 한가운데 왕이나 장군들의 무덤을 크게 만들었다. 무덤은 솟아있는 모양과 함께 어머니의 젖가슴을 상징하기도 한다. 또한, 토함산의 석굴암도 신라인의 신앙과 호국을 위한 염원으로 서라벌에 뜨거운 일출의 기운을 가장 먼저 전하기 위함이 아니었던가.

지금 나는 봉황로에 있는 고분 앞에 서 있다. 북쪽을 향해서 왼쪽은 노서리, 오른쪽은 노동리 고분군이다. 나는 노서리 고분군 속으로 걸어들어 갔다. 10여기의 우람한 고분들이 어둠 속에서 침묵으로 나를 맞이한다. 서봉총(瑞鳳塚)일까 금관총(金冠塚)일까 정면에 서 있는 가장 큰 무덤을 향해서 계속 걸어갔다. 이제 내 눈에는 도시도 하늘도 다 가려버린 매머드 무덤 외엔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다.

경사진 무덤의 능선을 따라 몇 발짝 걸어 올라가노라니, 갑자기 전신이 나른해지며 늪에 빠진 사람처럼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다. 길게 누웠다. 하얀 달이 눈 위에 머물러 있다. 순간, 아득히 잊어버렸던 기억 속으로 빠져들어 간다.

"어머니!"

하얀 달에 어머니의 모습이 보인다. 곱게 빗질하고 은비녀로 쪽진 머리, 갓 마흔을 넘긴 아직은 고왔던 그때의 모습이다. 순간, 이 세상이 만들어내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고, 오직 그리운 얼굴 하나 내 눈에 가득하다. 별이 내린다. 별은 노란 색 꽃무늬 이불이 되어 능침(陵寢)에 누워있는 내 몸을 포근히 감싸준다. 어머니 젖무덤에서 배를 불리고 잠든 아기처럼 세상에서 제일 편안하고 자유로운 마음이다.

한 줄기 서늘한 바람이 얼굴을 스친다. 나뭇가지가 부딪는 소리가 들린다. 잠시 깊은 잠 속에 빠졌었나 보다. 긴 하루의 피로가 엄습한다. 그러나 선뜻 일어나고 싶지가 않다. 꿈속에서 함께 한 어머니의 따스한 손길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다.

언젠가부터 나의 4월은 잃어버린 시절을 되짚어 무덤과 무덤 사이를 유영(遊泳)하면서 치유되지 않는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또 한 해를 견뎌내는 힘을 얻는다. 그때 코흘리개였던 막내누이는 무덤과 모성 사이에서 수많은 날들을 어떻게 지내왔을까. 내년 봄에는 여기 이 고분에 나란히 누워 오늘처럼 저 달을 함께 보고 싶다.

* 소개 : 필자 이봉길은 계간지인 창작수필(創作隨筆) 2004년 여름호, 제51회 '인연'으로 등단상에 입상한 수필문학가이다.

매일 매일을 새롭게 시작하자

금기연(21기 사관)

필자의 주일본 한국대사관 공군무관 시절은 30여 년간의 군 복무 중에서도 정말 의욕적으로 일한 기간이었다고 장담한다. 어떻게 해서 그랬는가를 가만 살펴보면 우선 본인이 원해서 간 곳이었다. 항상 가라는 데로 가서 최선을 다 해 일하는 것이 미덕이었던 당시에 본인이 원해서 갔다는 것은 굉장한 것이었다. 그리고 하는 일마다 도전적이어서 극복하려는 의욕이 항상 넘쳐흘렀던 시절이었다. 물론 두려움도 있었다. 혹시나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염려도 있었다.

그러나 무엇이 잘못된다면 그것은 우리끼리의 일이 아니라 국제적인 망신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정말 최선을 다해 일했던 것 같다. 더구나 상대는 일본이 아닌가?

덕분에 무관단의 간부가 되어서 활약하기도 했고, 간부학교(우리의 공군대학)에 새로운 자리를 마련하여 우리 학생을 보내기도 했다. 외국 무관으로는 처음으로 순수 일본산 훈련기를 탑승한 것도 필자가 처음이었고, 외국인에게는 절대출입금지구역인 항공기 시제기 테스트 센터를 파악하기 위해 출장 온 우리 공군 장성을 앞세워 찾아간 것도 필자가 처음이었다. 이임하는 필자와 가족만을 위해 항공막료장이 참모들과 함께 공관에서 가든파티를 열어준 파격적인 일도 필자가 처음이었다.

우리는 새로운 임지에 가면 이렇게 의욕이 넘친다. 그것도 본인이 원하는 임지일 경우는 그 의욕이 그야말로 배가 된다. 결의를 다지고 의욕을 새롭게 하는 계기는 또 있다.

새해가 되면서, 새로운 상관을 맞으면서, 새 계급장을 달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난관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누구 할 것 없이 새로운 마음가짐이 된다. 새로 시작하게 된다. 그러면 침체되었던 분위기가 살아나고 어렵게만 느껴지던 일도 잘 풀리게 마련이다. 활력이 넘치고, 효과가 빠르며, 능률이 오른다. 이렇게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좋은 것이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매일 매일이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다. 매 시간, 매 순간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다. 같은 날이 되풀이 되는 법이 없고, 같은 시간이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매 순간은 한번 지나가면 그만이

니 어느 순간인들 거듭해서 다시 쓸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매일 매일을 새롭게 맞이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 지나간 것은 과거가 되어 버린다. 누구라도 과거를 되돌려서 다시 살 수는 없다. 그리고 미래는 불확실하다. 과연 우리에게 미래라는 것이 있을지 없을지도 확실한 것이 아니다.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면 현재라는 시간은 분명 선물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영어로 현재는 선물과 같은 뜻의 present라고 쓰는가 보다. 현재에 살고 있음이, 가족이 있음이, 일이 있음이, 집이 있음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음이…. 모든 것이 선물이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전역 후 한동안은 쉬는 것이 당연하다 보니 시간이 넉넉하다. 흔히 말하듯이 가진 것이 시간뿐일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오래 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게을러지고, 어제나 오늘이나 그게 그것처럼 되어버린다. 새로운 것이 전혀 없고, 시간을 주체하지 못해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게 될 수도 있다. 현역 시절의 바쁘고 힘든 시간에서 벗어나 사람답게 여유를 갖는다는 것이 그만 잘못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럴 때는 분위기를 바꾸어야 한다. 각자의 여건에 맞게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해야 한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덕유산 정상에서 바라본 남덕유산과 서봉

필자의 경우는 등산이 아주 많은 도움을 줬다. 매 주말에 한번씩 산악회와 함께 하는 산행이 항상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한 구비 돌 때마다, 한 고개 오르내릴 때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는 풍광에 감탄하고 사진으로 찍어와 생각날 때마다 꺼내보는 즐거움에 시간가는 줄 몰랐다. 함께 한 회원들에게 메일로 사진을 보내랴, 받아서 서로 비교하랴 오히려 시간이 부족했다.

사진을 찍다 보니 철마다 바뀌 피는 야생화가 그리 예쁜 줄도 알게 되었고, 전국을 누비다 보니 산세도 볼 줄 알게 되었다. 게다가 아내와 함께 장시간의 백두대간 종주를 하다 보면 저절로 전우애(!)가 생긴다.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사이에만 가능한 전우애가 아슬아슬한 바위능선을 지나고 깊은 계곡을 건너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게 생긴다. 부부애와 전우애가 함께 어우러진다. 우리는 그런 사이가 된다.

홀아비 꽃대

걸으니 다리가 튼튼해지고, 맑은 공기만 마시니 온갖 내장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항상 새로운 곳의 안 가본 산을 오르내리니 반드시 새로운 고장을 거치게 마련이다. 요즈음은 지방자치의 덕분으로 저마다 자랑이 늘어지니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유익하다.

필자는 또한 틈만 나면, 아니 틈을 만들어서 광교산에 간다. 강의를 준비하거나 글을 쓰다가도 생각이 잡히지 않으면 광교산으로 달려간다. 전역에 대비하여 마련한 집이 운 좋게도 광교산 자락이라 아파트 울타리를 나서면 바로 광교산 품이다.

통상 2시간 여, 시간이 넉넉할 때는 그 이상을 산에서 보낸다. 그러면 언제나 변함없이 머리가 맑아지고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용기가 치솟는다. 울화가 가라앉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다. 약해지던 의지가 더욱 공고해진다. 비가 오면 오는 대로, 눈이 오면 또 색다른 모습으로 나를 반겨주고 어루만져 준다. 그래서 산엘 간다.

등산은 초보는 초보대로, 프로는 프로대로 각자에 맞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있는 대로 백두산이나 히말라야까지도 갈 수 있고, 없으면 없는 대로 전철요금만으로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명산을 오를 수 있는 것이 등산이다.

누구나 각자가 좋아하는 것으로 취미를 삼아보자. 정기적으로 좋아하는 취미활동을 한다는 자체가 생활에 훌륭한 자극제가 된다.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활력소가 된다. 그로 인해 매일 매일이 새로워짐을 느낄 수 있다.

가능하면 배우자와 함께 하는 것이 좋다. 필자처럼 집에서 뿐만이 아니라 산에서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다. 가장 좋아하는 것을 아내에게도 해주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것을 통해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이해가 깊어지고, 덤으로 전우애까지 생긴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가 아니겠는가?

비행단장 때 부인들과 함께 필드에 나가는 시간을 마련하고 장려하였다. 동료들과 어울려 함께 운동을 하면서 재미있는 일들이 생겼다.

자기는 누구보다 키도 크고 힘도 센데 왜 드라이버 거리가 짧으냐고, 연습이 부족한 탓이라면 나가서 연습을 하라고 격려를 하더란다. 또, 쉬는 날이면 항상 운동이냐며 투덜대던 부인이 골프화도 바꾸라 하고 옷도 새로 사다 주더란다. 이해가 되니 강력한 후원자로 변한 것이다.

특별기고

공군사관학교, 아직도 마음 한 구석에… 접힌 꿈과 열린 꿈

전인영(서울대 교수, 국제정치)

꿈이 있기에 인생은 아름답다. 인간에게는 크고 작은 꿈이 있고, 인생에는 무수한 삶의 길이 있다. 극소수 사람은 간절히 바라던 꿈을 실현하는 행운을 체험하거나, 보람되고 행복한 삶을 향유한다. 오랫동안 불태웠던 대통령의 꿈과 야망을 달성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권 당첨으로 일확천금의 주인공이 되는 행운아도 있다. 사랑하는 연인과 결혼에 골인하여 꿈과 같은 행복한 가정을 꾸민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나 깨나 그리던 이산가족과 극적으로 재회한 사람도 있다. 능력의 한계나 주어진 여건 또는 상황변경 등으로 인해 꿈을 포기하고 대신 다른 길을 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현 가능성이 낮은 꿈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실현 여부에 관계없이, 꿈은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만든다. 꿈은 인생의 목표와 방향 및 방법을 제시한다. 꿈이 없는 인생을 상상해 보라. 얼마나 무기력하고 건조한 삶이 될지를. 꿈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인간을 만들어 낸다. 꿈이 있기에 인생에 즐거움과 희망이 있고 발전이 있다.

나도 이루지 못한 꿈이 하나 있었다. 고교 시절, 나는 서울운동장에서 '타워 다이빙' 연습 도중 몸의 균형을 잃어 고막을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는 공사에 지원하여 푸른 고공을 시원하게 날아 보려던 나의 소중한 꿈을 무산시켰다. 지금도 푸른 제복의 멋진 보라매 생도들을 거리에서 마주치게 되면, 나도 저런 유니폼을 입을뻔 했는데 하는 생각과 더불어, 하늘을 선택한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격려해 주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도 한다.

중고교 시절 나는 가끔 빈 휘발유 드럼통 속에 들어가 학교 아래 운동장 쪽으로 굴러 내려가곤 했다. 원시적 방법으로 하늘을 비행하는 조종사의 꿈을 키웠던 것이다. 통에서 빠져 나오면

하늘이 빙빙 돌고 노랗게 보이며 구토 증세를 느끼곤 했다. 어떤 때는 드럼통이 너무 빨리 구르거나 돌에 부딪쳐 튀는 바람에 위험했던 적도 몇 번 있었다. 그렇듯 위험부담을 감내하면서 창공을 누비는 멋진 조종사가 되는 꿈을 키웠었다.

대학시절 산악부에 가입했던 나는 다시 한번 좌절감을 맛보아야 했다. 정부가 마련한 대학생들을 위한 특수체육의 일환인 낙하산 강하 교육 프로그램에 합세하고 싶었으나, 포기해야 했던 것이다. 이유는 고막이 성하지 못한 터라 한강의 모래사장 아닌 강물 속으로 낙하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 때 낙하산 훈련을 받았던 산악부 친구들을 무척 부러워했었다. 그 대신, 산악훈련 프로그램을 택해 타대학교 산악부원들과 함께 설악산 백담사에서 신흥사로 빠지는 기억에 남는 산행에 참여했다. 캠핑을 하면서 멀리 산 위로 빨갛게 타오르는 산불을 보기도 했고, 대청봉 정상에서 야영 준비를 하면서 기막히게 아름다운 운해에 넋을 잃기도 했었다. 이렇듯 특수산악훈련이 좋았지만, 낙하산 훈련 기회를 놓친 아쉬움은 오랫동안 가시지 않았다.

나는 지금도 특별행사 때 실시하는 특전사 장병들의 낙하 시범을 볼 때, 감탄과 더불어 부러움을 느낀다. 외국 스카이다이빙 동우회원들의 화려한 집단낙하와 포메이션을 보면 가슴이 설레기도 한다. 늦게나마 한번 해 보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끼기도 한다. 하기는 2차대전 중 함재기 조종사였던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생일 기념 낙하산 점프를 감행하여 찬사를 받지 않았던가. 나라고 못 뛰어 내릴리 없건만. 몸의 유연성이 떨어지니 그만 두는 편이 현명하다고 자신의 용기 부족을 합리화하기도 한다.

나는 6·25전쟁 기간 전투기와 전폭기들을 실컷 보았고, 지근거리 폭격으로 혼이 난 일도 있다. 전폭기에서 투하된 콩알만한 까만 점들이 새우젓 독만큼 커지면서 폭발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찻길 한복판에 엎드린 채 본 일도 있다. 9·28 수복 때 낮게 수색비행을 하는 미군 전투기 조종사의 상체 부분을 본 생생한 기억도 남아있다. 지금도 비행기 소리가 나면 하늘을 쳐다 본다. 내가 직접 날지는 못하지만, 누군가 비행기를 조종하여 높은 하늘을 날고 있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다. 대리 만족이라고나 할까. 특히 고공에 하얀 선을 그리며 빠르게 비행하는 거의 보이지 않는 비행 물체를 보면, 멋지다는 감탄과 더불어 사라진 꿈에 대한 아쉬운 감을 느낀다. 푸른 하늘을 나는 조종사의 꿈을 오래 전에 접었지만, 하늘을 날고 싶었던 꿈은 아직도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라진 꿈이 아직도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

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인생에는 수없이 많은 길이 있다. 비록 조종사 꿈을 접기는 했으나,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파일럿이 되어 직접 조종간을 잡을 기회는 놓쳤지만, 나는 항공 산업의 발달로 인해 여객기 탑승객이 되어 하늘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복 받은 시대에 살고 있다. 고공을 나는 여객기는 물론, 낮게 나는 프로펠러 경비행기와 헬리콥터를 타 볼 기회도 있었다. 이 정도면 하늘을 날고 싶었던 나의 소중한 꿈 일부가 실현된 셈이다.

조종사는 한 때 나의 소중한 꿈이었다. 그렇지만, 조종사 대신 택한 다른 인생 길도 그리 나쁘지 않다. 하나의 문은 닫혔으나, 다른 문이 열린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회고하건대, 다이빙 사고는 나에게 다른 인생길을 열어 주고 오늘의 나를 있게 하는데 기여했다. 못 이룬 조종사의 꿈을 간직한 채, 나는 현재 정치학자의 길을 불만 없이 걷고 있다. 학자가 못 되었으면, 제3의 다른 길을 택했을 것이다.

살면서 세상을 보는 나의 시각도 이제는 많이 달라졌다. 자라면서 군이 육 · 해 · 공 · 해병 모두를 필요로 한다는 것과 공사 입교만으로 조종사가 보장되는 것이 아님도 알게 되었다. 나아가, 정치 · 외교적 결정, 전략 · 전술, 행정, 정보, 작전, 군수, 정비 등도 비행 못지않게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조종사나 비행은 시스템의 일부이고, 시스템 전체가 제대로 작동하고 제 기능을 수행해야 부분도 존재가치와 의미가 있음도 터득하게 되었다. 조종사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과 고강도 훈련이 필수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군인은 조직과 명령에 충실하고, 언제나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엄숙한 사실도 깨닫게 되었다. 한마디로, 과거의 나는 인생을 너무 낭만적으로 그리고 단순하게 생각했다. 이제는 현실을 폭넓고 다양하게 파악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살다가 하나의 문이 닫힌다고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 이유는 수많은 기회의 문이 그대로 열려 있기 때문이다. 닫힌 문에서 눈을 돌리면, 또 다른 문들이 열려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인생은 꿈이 있어 아름답고, 좌절이 있기에 새로운 꿈을 실현할 수 있어 좋다. 지금도 나는 내가 택한 길에 만족하면서 충실하게 살아 보려고 노력한다. 비록 청소년 시절 동경했던 빨간 마후라의 꿈은 사라졌으나, 현재는 국가안보와 북한정치를 가르치는 직업에 감사하고 보람을 느끼면서 살고 있다.

제1회 (Home Coming Day)

모교 방문의 날을 맞으며

– 편집실 –

올해 6월 10일은 56주년을 맞는 모교 공군사관학교 개교기념일이다.

이 역사적인 날, 개교기념 행사와 처음 가지는 「Home Coming Day」 축제 행사를 함께 진행함에 더욱더 의의가 있고 기쁜 날이다.

이 행사를 주장하는 동창들의 목소리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일기 시작하여 올해초 공군사관학교와 총동창회간 수차 협의를 거쳐 탄생하게 되었다. 우선 동창회원이 모교를 방문하여 ▲ 모교 발전상을 듣고 보고 ▲ 선후배간의 친교를 통한 우애와 화합을 도모하며 ▲ 가족을 동반하여 사관학교를 홍보하고 ▲ 이 행사를 통하여 졸업생은 모교에 대하여 사랑과 관심, 그리고 긍지와 자부심을 재충전하자는 모임이다.

행사날짜는 3월의 공군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날, 6월의 개교기념일, 10월의 성무제 기간이 제안되었으나 그 취지와 여건을 고려하여 6월 개교기념일로 정하였다.

행사내용으로는 ▲ 학교현황 및 교육진흥재단 운영현황 보고 ▲ 생도 퍼레이드와 축하 비행을 포함한 개교기념 및 졸업생 환영행사 ▲ 박물관, 생도내무반 및 생도복합회관 견학 ▲ 그리고 생도식당에서 재학생과 오찬 등이다.

기러기의 귀소성이나 연어의 회귀본능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나 옛을 그리워하고 자기를 키워준 모교를 찾는 법이다. 개교 반세기가 지나간 세월이지만 이 뜻깊은 축제의 날, 떠났던 새들이 그 둥지로 찾아 돌아옴에 설레는 마음이 큰 것은 우리가 같은 창(窓)가에서 공부하고 같은 교문(校門)을 나온 동창이자 동문이라는 필연(必然) 때문이다. 거기에다가 사관학교는 더 강한 애국심과 애교심이 요구되어 더 많은 동고동락이 배어있기 때문에 일반대학보다 그 본능이 더 간절한 것이다.

처음 시작은 언제나 어려운 것인데 이것을 마다하지 않고 제1회 「Home Coming Day」을 제정하여 만남의 장을 마련해 준 모교 공군사관학교에 감사하며 무궁한 발전과 영광을 기원한다.

공사 History Review/옛날 옛적에…

– 편집실 –

교가(校歌)

1951년 봄, 가사는 당시 교장이던 최용덕 장군이 만들고 작곡은 김성태 정훈 음악대장이 맡았다. 노랫말과 가락, 그리고 거기에 담긴 의미는 그대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1절) 우리는 피끓는 배달의 아들 / 높고 빛나는 한배님 정신 어어받아서
누리에 떨치고자 하늘로 솟나니 / 우리들 영혼의 기지 공군사관학교

(2절) 우리는 하늘을 배우는 젊은이 / 높고 참다운 군대의 정신 새로 이룩해
나라를 지키는 힘 하늘로 달린다 / 우리들 충성의 원천 공군사관학교

(후렴) 하늘은 우리의 일터요 싸움터 / 하늘에 살면서 하늘에 목숨바친다.

– 공군사관학교 50년사(1949~1999) P85 –

교훈(校訓)

학교 교육 이념을, 인간교육에 중점을 두고 모든 사관생도들의 생활과 사고의 중심에 자리잡을 지표의 역할을 해줄 압축적이고 간명한 표어가 필요하던 중 1954년 3·1절 이승만 대통령이 친필로 무용(武勇)을 하사하여 교훈으로 제정하였다.

무(武)는 군(軍)을 의미하고 3무(三武)로 분류하여 강력(强力), 인내(忍耐), 은애(恩愛)이며, 용(勇)은 5용(五勇)으로 인용(仁勇), 의용(義勇), 예용(禮勇), 지용(智勇), 신용(信勇)이다.

1966년 지휘관 및 교육관계자들이 지, 덕, 용(智, 德, 勇)으로 다시 제정하였다가 1970년 한글전용방침에 따라 박정희 대통령이 하사한 친필 휘호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친다로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 공군사관학교 50년사(1949~1999) P86 –

성무대(星武臺), 성무인(星武人), 성무회(星武會), 성무(星武)

1966년 4월 11일 박정희 대통령이 본교를 성무대로 명명한 것을 계기로 본교의 졸업생들은 스스로 우리는 성무인이라는 공통의 내면의식을 형성화하고 이를 전통화하였다.

– 공군사관학교 50년사(1949~1999) P147 –

참고로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를 오성회(五星會)로 불러오다가 1999년 7월 정기총회에서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라 칭하고 별명으로 성무회라 변경하였다.

아울러 동창회지도 2004년 1월부터 신문에서 회지로 변경(연 2회)하였으며 2005년 7월 제31호부터 그 명칭을 同窓會誌에서 星武로 이름하였다.

공사십훈(空士十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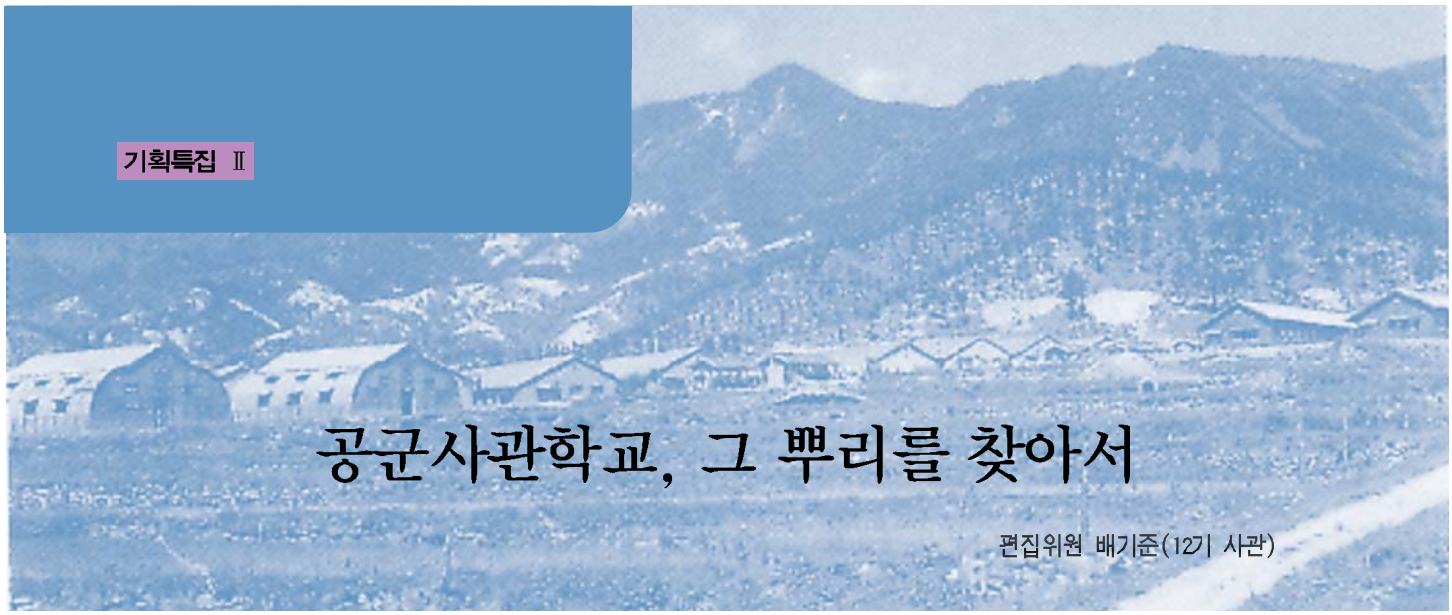
본교가 1951년 5월 제주도에서 진해로 이동한 이래 사관생도의 정신적 지표가 되어왔던 것 중의 하나가 공사십훈이다.

1. 용의단정(容疑端正)하라.
2. 청렴결백(淸廉潔白)하라.
3. 성심복종(誠心服從)하라.
4. 책임완수(責任完遂)하라.
5. 신의일관(信義一貫)하라.
6. 공평무사(公平無私)하라.
7. 침착과감(沈着果敢)하라.
8. 신상필벌(信賞必罰)하라.
9. 솔선수범(率先垂範)하라.
10. 은위겸비(恩威兼備)하라.

이 공사십훈은 당시 부교장이던 김득룡 중령(장군으로 예편, 1969년 작고)이 전문을 작성하고 문관 이홍기 교수가 보완하였으며 교훈이 제정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생도 생활규범이 되어오고 있다.

– 공군사관학교 50년사(1949~1999) P119 –

기획특집 Ⅱ



공군사관학교, 그 뿌리를 찾아서

편집위원 배기준(12기 사관)

공군사관학교 개교 56주년을 맞아 지금의 우리를 잊지 않기 위해 우리의 뿌리를 기억해야 한다는 뜻을 모아 지난 1월과 3월에 총동창회 회장, 사무총장, 사관학교 박물관장과 함께 사관학교가 태어나고 지나가다 머물던 발자국을 찾아 현지를 답사하였다.

그동안 해군교육사령부, 공군 제308방공관제대대, 서울 강서구청, 제주도 모슬포 대정 초등학교와 강병대교회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한다.

모교(母校), 공군사관학교는 어디에서 탄생하고 어디를 떠돌아 다니다가 이제 어디에 와 있는가?

개교(開校)한지 반세기가 지나간 세월,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수많은 성무인(星武人)들은 성무대(星武臺), 그 캠퍼스에서

– 지식을 배우고 진리를 탐구하던 창(窓)가에서, 땀과 눈물로 몸과 마음을 여물게 한 연병장에서, 우렁찬 군가와 드높은 명예를 외치던 전대점호장에서, 그리고 어두움이 몰려와 밤이 깊어지면 머리맡에 따뜻이 스며드는 취침나팔 소리에서 –

치밀한 지성, 대담한 야성, 불굴의 용기, 강인한 체력을 다듬고 완성해 갔다. 그리고 그 교문(校門)을 나와 조국과 하늘을 지키고 또 세상을 살아왔다(1기 사관은 한국전쟁에서 나라를 지키라는 조국의 부름을 받고 기꺼이 응하여 조국하늘에 장렬히 전사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지금 그들을 낳고 키워준 옛 보금자리가 역사의 뒤안길에서 사라져가는 메아리처럼 아스라한 전설이 되었나니!

우리 일행은 해방과 건국 시절, 혼란과 무지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공군사관학교가 개교한 뜻깊은 터전이었던 김포(1기 사관 캠퍼스)와 6 · 25피난과 휴전 후 가난하고 열악한 시절을 보냈던 제주도(1기, 2기 사관 캠퍼스)와 진해(1기~10기 사관 캠퍼스)를 답사하기로 하였다.

알지도 못하고 가본 적도 없는 옛 성무대, 그 뿌리를 찾아가기로 하였다. 퇴색한 흑백사진으로만 보아온 나즈막하게 깔려있는 퀀셋(Quonset), 철도객차 같은 가교사(假校舍)는 빈약하고 초라하여 연민의 정마저 느끼게 하지만 순수하고 정겨운 시골학교 같아 낭만적이고 향수적이다. 이 소중한 유산, 옛 사관학교 막사(幕舍)가 보고싶어 출발하기로 하였다. 그 모습이 너무 오래되어 비록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그곳에는 그 때 그들 곁에 있어준 하늘과 바다, 산과 강 그리고 들판이 있고 그들과 숨결을 같이한 햇빛과 바람 그리고 그들이 밟고 뛰어다니던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그 흙이 있어 설레는 마음으로 서둘러 나섰다. 그 발걸음은 먼 훗날 옛 둥지를 찾아 날아가는 새들을 위해 그 둥지의 좌표를 지금 찍어 놓아야 한다는 위기감도 없지않아 있었다.

우선 「공군사관학교 50년사(1949~1999)」에서 사관학교 캠퍼스의 발자취를 살펴보고 답사한 현지를 화보로 설명하면서 돌아오는 길에 그 흔적을 망각(忘却)하지 않기 위한 제언(提言)을 정리하였다.

공군사관학교 캠퍼스의 발자취

공군사관학교는 1949년 6월 10일 김포(현재 김포비행장 정문 동북쪽 1km 지점 방화동)에서 1기 사관 97명이 입교함으로써 개교하게 되었다(그래서 개교기념일을 6월 10일로 정하였다).

처음에는 육군 「항공사관학교」였으나 그 해 10월 1일 공군독립과 함께 교명도 「공군사관학교」로 개칭하였다.

이듬해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1년 넘게 자리했던 김포에서 수원(매산초등학교), 대전(대전여자중학교, 서대전초등학교, 대전기지), 대구(해서초등학교, 해안초등학교, 경북중학교, 해안초등학교), 진해(진해기지)로 이동하여 때로는 하룻밤을 세우고 때로는 몇일만에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였다.

그 후 서울이 수복되고 국군과 UN군이 북진하자 김포를 떠난 지 100여일 만인 1950년 10월

진해에서 서울(성남중학교)로 올라오게 되었다.

그러나 중공군의 전쟁개입으로 북상했던 전선이 남으로 이동하게 되자 또다시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으니 1950년 12월 대구(칠성초등학교)로 20여일 후에는 제주도(모슬포기지, 대정초등학교)로 옮겨 다녔으며 기간 중에는 대구(해서초등학교), 사천(사천기지)과 진해(진해읍 신덕산동)에 분교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전세가 호전됨에 따라 1951년 5월 제주도보다 사관생도 교육을 위한 교수확보가 용이하고 임시수도 부산과 거리가 가까우며 비행장이 있는 진해(장천동)로 이전하게 되었다. 진해만의 검푸른 바다와 천자봉을 등지고 자리잡은 진해사관학교 시절은 전시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1기 사관에서 10기 사관까지의 피땀이 점철된 곳이었다.

그 후 8여년 간의 진해 임시교사를 마감하고 개교 10년 만인 1958년 12월 비로소 현대적 교육 환경을 구비한 서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방동) 캠퍼스로 옮기게 되었다. 관악산을 바라보며 자리잡은 서울 대방동 사관학교는 1958년 4월 입교한 10기 사관(졸업 및 임관은 7기 사관)에서 1985년 입교한 37기 사관까지 무려 27년간 성무인의 숱한 추억과 애환이 깃든 보금자리이기도 하였다.

그 후 정부의 수도권 인구분산 정책에 부응하여 1985년 12월 성무봉의 정기와 쌍수리의 기백을 이어 받은 현재의 청주(충북 청원군 남일면 쌍수리)로 이전하였으며 바야흐로 공군사관학교는 세계적 수준으로 발돋움하며 미래 항공 우주시대를 선도할 정예 공군장교를 양성함으로써 성무대의 새로운 역사와 전통을 창출하고 있다.

사진으로 본 옛 공군사관학교 현장 르포

김포(1949. 6. 10.~1951. 6. 27.)

1949년 6월 10일 공군사관학교가 개교한 출생지이며 1년여 주둔했던 현 방화동 지역에는 일반주택과 금성교회 주차장이 들어서 당시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관할 강서구청장과 도시관리국장은 사관학교 주소와 현지점을 대조하여 보고 향후 Airport New Town 개발지

역이기 때문에 공원부지 내에 공군사관학교에 대한 상징물과 항공기 전시를 긍정적으로 수용하였다.

옛 공군사관학교 터의 변형된 현재 모습

강서구청에서 구청장, 도시관리국장과 함께

제주도(1951. 1. 25.~4. 23.)

1·4후퇴시 서울에서 대구를 거쳐 잠시 머물렀던 모슬포 기지는 섬 서남부에 위치하여 황량한 들판에 강풍이 불고 있었으며 일본군이 대륙진출 교두보로 사용한 비행장과 지주만 남은 관제탑을 비롯하여 군사시설 잔재가 여기저기 산재해 있다. 모슬포기지로부터 이동하여 80여일(1951년 2월 1일~4월 23일) 주둔한 모슬포 대정초등학교는 진해사관학교 다음으로 오래 머문 곳이다. 학교 교정에 국난 극복의 애정이 서린 「空軍士官學校 訓蹟碑」가 세워져 감회가 새로웠다. 현지 공군 제308방공관제대대장은 이 훈적비는 36년이 지난 1987년 9월에 건립위원장(김창규 전 공군참모총장)과 건립위원, 공군장병 그리고 현지 후원자들의 모금으로 완공되었다고 설명한다.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정초등학교장은 이 학교가 1995년 9월 공군 제308방공관제대대와 1996년 2월에는 공군사관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어 이해와 친선을 도모하고 있다고 한다.

강병대(强兵臺) 교회는 1952년 5월 육군 제1훈련소 장병들에게 고된 훈련을 견디고 당시 전사자가 속출하던 죽음의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두려움을 떨쳐주기 위한 정신교육 목적으로 준공하였다. 1965년 7월 공군이 인수하여 현지 장병 및 주민교회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2002년 5월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엄숙하고 성스러운 성지였다. 아울러 모슬포 대정읍 지역은 수많은 군사유적이 있어 역사적, 기념비적 가치가 큰 곳이라고 교회관계자의 설명도 있었다.

모슬포기지 전경

대정초등학교 교정

공군사관학교 훈적비

강병대 교회

진해(1951. 5. 1.~1958. 12. 18.)

제주도에서 이전한 진해 장천동 사관학교는 해병대로부터 기지를 인수받아 8여년 주둔한 곳으로, 당시 건물위치와 윤곽은 겨우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변했고, 오직 방공호 2개가 원형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었다. 현재 해군교육사령부 예하 시운부(시설, 운전부)가 관할하며 이 기지가 「진해시 도시계획」에 따라 대형 아파트가 곧 들어설 예정이라며 그 때는 반드시 해군, 해병대 기념비를 건립할 것이라는 해군교육사령관의 설명을 듣고 공군사관학교 기념비 조성에도 사전에 유관부서와 협조한다면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 시절 사관생도들의 기쁨과 슬픔을 산울림으로 만들어 되돌려 보냈던 「천자봉」은 그대로 우뚝 솟아 있었고 「진해만」의 검푸른 바다는 젊은날의 사랑도 그리움도, 즐겁고 아름다운 우정도, 차가운 겨울 물속으로 잠수하게한 비정함에 억울하고 분한 마음도, 후회스런 일도 모두 용해하여 흡수하고 말없이 출렁이고 있다. 사느냐 죽느냐(to be or not to be)의 갈림길에서 숨차 쓰러질 때까지 달리던 왕복구보코스 「마진터널」도 옛날과 다름없다. 기본군사 훈련을 받았다던 「상남」해병대 기지는 찾아가보지 못했다. 옛날 사관생도 시절 처음 들어본 그러나 나중에는 너무 자주 듣던 지명(地名)들의 이야기이다.

옛 공군사관학교 터의 현재 모습

1999년 마지막 철거된 내무반 전경

당시 구축된 교본부지역 방공호 앞에서 해군교육사령관(현 해군참모총장)과 함께

돌아오는 길에

출발할 때부터 옛 사관학교 보금자리가 어떤 곳이었으며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 하는 호기심과 본래의 모습은 비록 사라졌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머물렀다는 기념비(紀念碑)나 표석(標石 : 목표나 표지로 세우는 돌. 예를 들어 훌륭한 선비의 집터임을 표시한 작은 석판)만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그리고 다른사람 눈에는 보잘 것 없지만 사관생도들에게는 아주 소중한 유물인 진해사관학교 내무반이 그대로 있으면 건물 일부를 청주 사관학교 교정으로 이전할 야심을 품고 갔으나 1999년 마지막 건물이 철거되었다니 애석하기 그지없다. 시간은 기회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이번 현지 답사 중에 가장 가슴 뭉클하게 감격했던 것은 6 · 25 피난시절 사관학교가 주둔했던 제주도 모슬포 대정초등학교 교정에 「공군사관학교 훈적비」가 세워져 있는 일이다. 참으로 숙연해지는 훈적비문의 마지막 구절은 오래 귀에 쟁쟁하였다. …우리 空軍은 나가서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우리는 하늘에서 살고/하늘에 목숨 바친다.

과거를 무시하거나 잊지 아니하고 세운 이 작은 훈적비가 후손에 남길 큰 공헌에 감사하며 기념비가 없는 다른 성무대 옛터들은 얼마나 공허하고 허망하며 무의미한가! 안타깝다.

공군사관학교 캠퍼스가 걸어간 발자취는 대한민국 현대사가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며 걸어온 험난한 길과 그 맥(脈)을 같이 한다.

그 발자취를 정리하면 김포(방화동) → 수원(매산초등학교) → 대전(대전여자중학교 → 서대전초등학교 → 대전기지) → 대구(해서초등학교 → 해안초등학교 → 경북중학교 → 해안초등학교) → 진해(진해기지) → 서울(성남중학교) → 대구(칠성초등학교) → 제주도(모슬포기지 → 대정초등학교) → 진해(장천동) → 서울(대방동)으로 나열된다. 주둔기간이 짧던 길던 머물렀던 자리라면 유서깊은 역사적 기념지역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이중에 비교적 오래 머물렀던 곳으로 현재 제주도 대정초등학교(80여일)에는 훈적비가, 서울 대방동(27여년)에는 성무탑이 이미 건립되어 있으니 제외하고 김포 방화동(1여년), 진해기지(70여일), 서울 성남중학교(70여일), 진해 장천동(8여년)에는 기념비를 건립하여야 한다. 나머지 피난길에 잠시 머물렀던 9개 지역은 사연을 반듯하게 새긴 표석을 심어야 한다. 그대로 방치하면 흐르는 세월과 함께 설 땅이 사라지고 결국 흔적이 영원히 실종(失踪)된다.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것은 현재일 뿐이다. 현재가 게으르면 현재는 물론이고 과거와 미래도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공군사관학교가 고난(苦難)과 고통(苦痛)의 길에서 인내(忍耐)하여 살아남은 역사의 현장을 만들어 놓는다면 과거 선배 사관생도들이 걸어간 것처럼 후배 사관 생도들에게 종주(縱走)의 길이 될 것만 같은 예감이 든다.

이제 공군본부, 공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그리고 그 증인(1기 사관에서 10기 사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그 작업을 궁리할 때가 되었음을 제언한다. 우선 기념비 4곳을, 표석 9곳은 차선으로 하여 현재 장소를 소유하고 있는 관공서, 학교, 군부대와 끈질기게 협조를 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 의미있는 이 사업의 관건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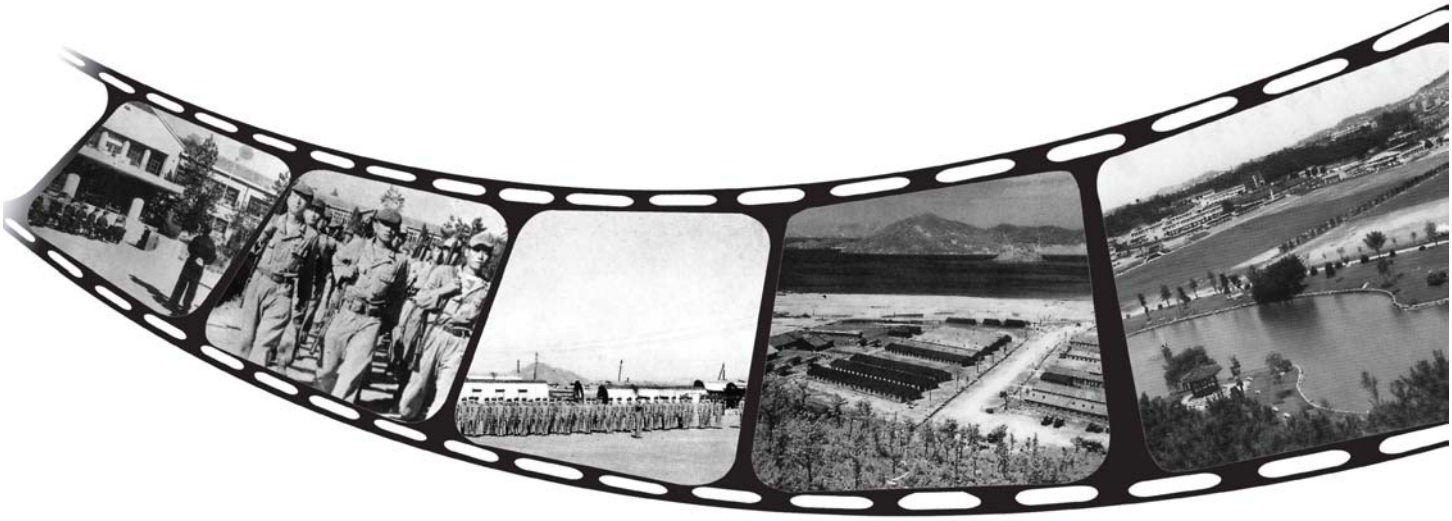
이번 뿌리를 찾아 다니면서 덤으로, 또 한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덧붙이고 싶다.

지금까지 새들의 둥지에 관한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에 살았던 새들에게, 그 시절 사관생도들에게 찬사를 보내야 할 근거를 발견하였다. 1기 사관은 작은 것을 제외하고 큰 훈장(勳章)만 다섯(김포, 진해기지, 성남중학교, 제주도, 진해 장천동), 2기 사관은 둘(제주도, 진해 장천동), 3기 사관에서 10기 사관까지는 하나(진해 장천동)를 가슴에 달고 있다. 여명기(黎明期), 황무지였던 공군사관학교를 피와 땀과 눈물로 개척한, 그래서 정체성과 얼을 지킨 영웅(英雄)이기

때문이다. 훈장을 단 영웅에게 박수와 갈채를 보낸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1기 사관이 평소 조용한 모범과 말없는 가르침으로 후배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는 그 모습의 본 바탕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은「장남만한 아우는 없다」라는 옛말처럼 1기 사관은 공군사관학교의 장남이라는 태생적 이유와 훈장 다섯을 단 영웅이라는 후천적 긍지와 자부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제서야 쉽게 알 수 있었다. 처음 시작은 언제나 두려운 법이다. 그 두려움을 헤치며 자갈 가시밭 길에서 공군사관학교라는 수레를 맨 앞에서 끌고 간 1기 사관 선배님에게 기립하여 우뢰와 같은 박수와 갈채를 보낸다. 우러러 한없이 보낸다.

우리 일행은 개교 56주년을 맞아 옛 성무대가 지나가다 머물렀던 발자국을 찾아 다니는 매우 특별한 기행(奇行)을 하면서 그동안 잠시 눈감고 소홀했던 평범한 이치를 복습하였다. 그것은 지금의 우리를 잊지 않기 위해 우리의 뿌리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과 우리가 오늘 심은 돌 하나가 세월이 흘러간 내일 후배 사관생도가 뿌리를 찾아 역사의 강(江)을 건널 때 기억의 징검다리가 된다는 그 이치를 복습한 셈이다. 거기에다 어렵고 힘든 길에서 항거하며 꿋꿋하게 걸어갔던 진정한 영웅을 알게 해주었다.

연일 바쁜 여정(旅程)을 모두 마감하고 제주공항에 막 들어서니 이미 화물하역 작업을 끝내고 시동 걸 채비를 하고 있는 정기 공수 군용기 C-130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맞바람을 안고 달려가는 그 걸음에 숨은 차지만 가슴은 조금씩 뿌듯해 오고 있었다.



동창회지가 다시 찾아준 인연

아래 글들은 총동창회지를 통해 다시 찾은 인연들에 대한 사연의 글이다. 메추리 때를 회상한 이은봉(10기 사관) 후배의 글을 당시의 훈육관인 최영민(3기 사관) 선배가 미국에서 읽고 이은봉 메추리에게 편지를 보내온다. 선배와 후배는 그렇게 다시 편지를 통해 해후한다. 총동창회지 30호의 "고난(苦難)과 역경(逆境)속에서 창조적(創造的) 삶이 잉태된다 –10기 사관의 생도생활– 이은봉 씀"을 참조바란다.

최영민(미국 Sandiego 거주, 3기 사관)으로부터

지난 신년 모임에 동창회지 제30(2005. 1호)호를 회장단으로부터 받아 지금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읽는 도중 10기생 이은봉 동문이 쓴 "고난과 역경속에서 창조적 삶이 잉태된다."를 읽었는데, 이 동문이 당시 훈육관 C 대위(3기 사관 선배)의 배려로 "침대 위의 빵파티(p–37)"를 가졌다는 대목이 나오는데, 주인공인 C 대위가 바로 저입니다. 이은봉 동문은 제가 30여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온 것을 모르는 모양입니다. 이 편지를 받으신 대로 이은봉 동문에게 연락하셔서 저의 거처를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주　소 : 1218 countrywood lane, Vista, CA 92081

전화번호 : (760) 597–2924

끝으로 우리 총동창회가 회원 전원의 합심으로 일진 월보하기 바라면서, 회장님을 비롯하여 회원 전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하나님께 기원합니다.

46년 전 훈육관, 최영민 선배님께

이은봉(10기 사관)

존경하는 최영민 선배님! 아니 우리 메추리 생도시절 훈육관님!

참으로 오랜만에 문안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편 죄송스런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최 선배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 후배는 최 선배님이 사관학교 훈육관으로 재직하실 때 메추리 생도였던 10기 사관의 한사람입니다.

그동안 무수히 많은 세월, 무려 45~6년의 시간이 훌쩍 흘러가 버렸습니다.

지난해(2004년) 연말 총동창회로부터 옛 생도생활에 얽힌 체험의 원고청탁을 받고 우리 10기 사관이 메추리 시절 겪었던 이런저런 이야기를 적어 보낸 것이 총동창회 회보에 게재되므로 해서 최 선배님과 이렇게 문안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58년 12월 공군사관학교가 진해시의 가교사에서 서울 대방동의 신축교사로 이동, 사관생도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 생활하는데는 퍽이나 힘든 시기였습니다. 학교당국은 신축교사(校舍)의 새로운 시설물과 장비 및 비품에 합당한 내무생활과 교육훈련을 요구했기에 생도들이 적응하는 기간동안은 극복해 나가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특히 당시 10기 사관은 최하급생인 메추리 생도였기에 겪어야 했던 고난의 강도가 더 심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 시절 최 선배님은 생도 전대 제3대대 훈육관이셨습니다. 최 선배님은 크지 않은 체구에다 또록또록한 눈매 그리고 야무지고 민첩한 행동은 메추리들에게 늘 무섭고 엄숙한 훈육관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끔 개별적인 접촉시에는 훈훈하고 따뜻한 면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메추리들이 유난히도 배고픔에 안타까워할 때 빵파티를 시켜주신 일은 몇 십년이 흘러간 지금에도 추억 속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내무생활에서 밤 10시면 소등과 함께 취침에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10시 이후에 침구속에서 빵파티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며 엄연한 내무규정 위반사항입니다. 이와 같은 규정위반이 행해질 경우 감시, 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훈육관이셨어요.

하지만, 그와 같은 직무를 뛰어넘어 베풀어 준 빵파티는 인간애, 즉 사랑이며 따뜻한 Humanism의 발로였습니다.

당시 최 선배님께서는 내무생활에 힘들어 하고, 배고픔에 못 견뎌하는 메추리들을 아우(동생)들로 보셨습니다. 그 순간은 훈육관이 아니셨어요. 그 때 이 메추리 생도는 생각했습니다.

훈육관의 고유한 직무를 잠시 접어두시고 엄한 규정을 어기면서 아우들을 사랑하며 보살피려는 그 마음, 그것은 어버이가 자식에게 베푸는 한없는 사랑이요, 형이 아우에게 대해주는 끈끈한 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느 조직의 규정보다도 강한 것이며, 사랑은 규정보다 상위의 개념이요 더 차원(次元) 높은 곳에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선배님은 그 사랑을 실천하셨기에 약간의 규정 위반은 오히려 훌륭한 조치였다고 믿고 있습니다. 훈육관으로서 선배님에 관한 기억은 빵파티 뿐만이 아닙니다.

다만 "빵파티"를 제한된 글 속에서 하나 예시 했을 뿐, 이 이외에도 생도들이 가져야할 덕목이며 젊은이들이 추구해야 할 꿈을 일깨워 주셨고, 생도 상호간의 우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같은 사랑으로 지도한 훈육관이셨기에 이 후배는 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군생활에서도 선배님의 가르침이 생활해 나가는데 하나의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군생활은 "삭막하다", "인정미가 없다"는 말을 흔히들 합니다. 진정코 사랑이 메마른 군대는 약졸의 집단이요, 사랑이 넘치는 군대는 강군(强軍)이라 확신합니다.

이 후배는 선배님이 오래도록 군에 머물러 군을 위해 많은 일을 할 줄 알았는데 어느 땐가 찾아 보려하니 일찍 군을 떠나셨다 하더군요. 선배님은 큰 뜻을 품고 미국으로 이민하셔서 또 다른 삶을 개척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배님은 최근 「역사를 알면 세계가 보인다」(한국문원 判)의 758페이지나 되는 대작의 책을 집필 발간하셨더군요. 미국에서는 Foot Hill College와 San Mateo College의 전자공학과를 졸업하시고 첨단 전자회사에서 봉직하시다 퇴직 후에는 저술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전해듣고 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선배님께서 보람찬 인생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선배님의 마음 속 깊이 자리잡은 「인간에 대한 사랑」의 일념이 아니었을까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선배님께서 후배들에게 베풀어준 진실된 사랑은 지금도 대한민국 공군의 구석구석에 숨쉬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선배님! 남은 여생 부디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장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필리핀에서 온 6기 사관, 故 사상익(史相益) 少領 가족의 편지

박춘택 회장님께

日氣가 不順한 계절에 健康하시리라 믿습니다.

空士 6期인 史相益 少領 未亡人 金惠淑입니다.

10월頃 會長님을 뵈옵고 제29호 同窓會紙를 주셨으며 친절히 對하여 주셔서 지금도 感謝히 生覺하고 있습니다.

1963년 3月 28日 金浦 계양산 上空에서 순직한지가 41年이 지났으며 새삼스럽게 마음이 아파옵니다.

4세, 2세인 두 아들 나이도 40이 지났고 아들 둘과 손자 둘, 손녀 둘을 따라 이곳 필리핀 나라에서 生活한지도 4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하루도 내 나라 한국은 잊은 적이 없으며 동작동(159호 묘비)를 자주 찾아가지 못함이 못내 아쉽고 안타까움을 글로 표현할 수가 없군요.

同窓會紙에서 56期 士官生徒 입교시의 사진을 보니 늠름한 모습에서 빨간 마후라 곤색 망또의 男便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빠없이 자란 두 아들과 가족들의 효성을 받으면서 행복하고 신앙인 가족으로서 이곳 마닐라 주간 잡지에 게재된 기사를 자랑하며 후배되시는 사관생도들에게 긍지를 더더욱 돈독히 심어 주고픈 생각에서 두서없이 적어 보았으며 空軍 未亡人으로 손색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자랑하고픈 마음에서도 이 글을 적어보냅니다.

空軍의 발전과 空士의 모든 분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김혜숙 올림

필리핀 전화 807-2974(Life time)

소개 : 다음 내용은 '마닐라 週刊' 에 게재된 김혜숙 여사에 대한 기사 내용

110호 정용환 님이 추천한

111호 주인공 김혜숙님

[오늘 하루가 축복이라 여기는 아름다운 실버 김혜숙(69)님]

■ 닮고 싶은 어른, 필리핀 거주 자랑스런 한국의 어머니

아직 정년이 되지 않은 사람이 정년 이후 또는 노후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노인은 젊어본 일이 있지만 젊은 사람은 늙어본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름답게 노년을 보내는 사람을 보면,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는 바람을 가지게 된다.

▲ 필리핀 봉사현장, 한인행사장에서 사람들을 향한 눈가에 미소가 고운 분을 만난다면, 신분증을 보지 않더라도 '장한 어머니' 김혜숙 님이 분명하다.

필리핀 한인 실버회 모임에서 처음 만난 이후, 한국학교 아이들의 송편 만들기, 부인회, 실버 꽃꽂이 행사 등 '어른'의 역할이 필요한 장소라면 어디서든 만나게 되는 사람이 있었다. 언젠가 이 지면에 꼭 담고 싶은 바람이었지만 누군가 추천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 드디어 110호 정용환 님의 추천을 통해 드디어 그 소망이 이루어졌다.

아직 파릇한 30대 젊은 사람에게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111호 주인공 김혜숙(필리핀 한인 실버회 부회장)님.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을 주었을 흔적인 눈가 주름마저 고운님을 정말 어렵게 만난 것은 '필리핀 생명의 전화' 사무실이었다. 마감을 하루 앞둔 저녁까지 완강히 거절하는 님을 설득하느라 몸무게가 가벼워(?)졌을 즈음이었다.

곱게 쪽진 은빛 머리만 아니라면 도저히 나이 가늠이 어려운 김혜숙 님은, 만남일을 기준으로 정확히 70세를 24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안경을 끼지 않고 성경을 읽을 시력의 건강함과 아름다움, 열정은 20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 필리핀 생명의 전화 최고령 상담자, 봉사는 그의 기쁨

지난달 이제는 그 자신이 자손들의 보살핌과 평안함을 몽땅 누려도 누구 한 사람 이의 없을 나이에, 의지가지없는 노인들에게 김치를 담궈 찾아가는 일까지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지난 3월과 4월에는 필리핀 최초의 생명의 전화 교육에 최고령으로 참여, 지각도 결석도 없던 우수교육생이기도 했다. 한국 부천 YMCA 상담교육을 통해 이미 상담원의 역할과 중요성을 알고 있는 그. 상담자는 교육을 통한 이론으로 다듬어지는 것 외에,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인간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내포해야 하기에 그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 매일 아침 8시면 미리 나와 기도로 누군가의 생명과 마음에 안식이 될 준비를 하곤 했다.

■ 늙는 것이 두렵지 않은 당당한 실버를 준비하기 위해 '실버회' 창단

"누구나 자녀들이 장성하고 나면 '잘 늙을 준비'를 또 스스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 모든 일에 너그럽고 여유로워지는 노년을 맞이해 남을 돌아 볼 시간을 갖게 된 지금, '이제야 말로 봉사할 때'라고 말한다.

"우리 나이에 용서 안 되는 일도 없고 해서 안 되는 일도 없어요. 그러니 어떤 곳에서 어떤 봉사를 해도 받는 이나 주는 이나 서로가 편안할 이때가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노년을 준비해서 누구에게도 짐이되지 않는 '당당한 어른으로 살자'는 생각에서 그이가 제안한 것이 바로 '필리핀 한인 실버회'다.

나이만으로 대접받고 누리는 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기쁘고 즐거울 환경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행복을 찾자'는 것이다. 벌써 정기모임에서 꽃꽂이와 건강댄스, 현지 공장 견학, 여행… 등 많은 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 부모가 즐겁고 행복해야 자식들도 행복하잖아. 자식들에게 효도만 강요할 것 아니라 우리도 젊은 사람들을 배려해야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부럽지 않다'는 그의 행복은, 큰 돈도 아니고, 넓고 푸른 언덕의 하얀집도 아닌, 바로 나이와 세대를 넘어 선 활짝 열린 마음으로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려는 그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 게다.

이런 어머니를 둔 두 아들과 며느리, 손자들의 마음도 만만치는 않아 보인다. 그이가 원하고 즐거울 일이라면 무엇이든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는 아들은, 요즘 어머니가 기쁨으로 봉사하는 실버회를 위해 별도의 승합차량도 마련해 주었다.

나이에 알맞은 지혜로 현재를 즐기고 감사하는 진정한 실버 김혜숙님. 그이는 늙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만 알게 모르게 받은 축복을 타인과 나눌시간이 적을까 조급할 뿐이라고 한다.

■ 주간마닐라 독자들의 '알 권리' VS 약속을 깨뜨리는 잘못. 그러나...

커리어 우먼, 커리어 실버(?), 멋쟁이 실버, 실버회 부회장, 생명의 전화 이사…… 등, 김혜숙 님을 설명할 수식어는 많다. 그러나 그이의 삶에서 '장한 어머니'로서 김혜숙님 이야기를 뺀다면 세칭 '앙꼬 없는 찐빵'.

이 '장한 어머니' 이야기만은 쓰지 않기로 굳게 한 약속을 지킬 것인가, 깰 것인가 무척 고민했다. 그러나 그 약속을 깨고 차라리 다음에 만나서 불기를 맞더라도 공개하기로 했다. 김혜숙님은 스스로를 '평범한 어머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 밝고 고운 자태 어디에도 흔적은 없지만 한국에서 장한 어머니상을 수상한 공인된 '한국의 장한 어머니' 가운데 한 사람이다.

70대를 한달도 남겨두지 않은 지금도 이렇듯 여자가 보기에도 부러움의 대상인 사람에게선, 듣기만 해도 가슴 설레는 '로맨스'가 술술 나오지 않을까 해서 시작된 이야기였다.

■ 존경받아 마땅한 '장한 어머니'

결론부터 말하자면 '존경받아 마땅한 한국 어머니의 자화상'이었다. 그이 인생에 가장 찬란한 나이 스무살에 만난 공군 파일럿. 그이는 말을 아꼈지만 중견 모 탤런트 집안의 사람이란 것만으로도 가히 짐작할 수 있는 사람과 5년 동안 열애 끝에 결혼했다. 곧이어 두 아들이 태어나고 행복이 무르익을 무렵 뜻밖의 사고로 남편이 순직하며 결혼 4년만에 영원한 이별을 맞게 된다. 그때 그이 나이 스물아홉, 아들은 4살, 1살이었다.

"지금 동작동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어요. 나도 죽으면 그 자리에 함께 묻힐겁니다."

결혼 전부터 근무하던 조흥은행에서 20년을 근속했지만 오직 두 아들 생각에 회사의 회식자리 한번 참석해보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흔히 상상하는 외로움이나 우중충함을 상상한다면 착각이다. 밝고 환하고 열정적인 김혜숙 님을 색깔로 표현한다면 망설임 없는 '빨강'이다. 그리고 가끔 부드러운 인디언 핑크라고 할까.

"친정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하시면서 그러시더군요. '너가 평생 활짝 웃고 환한 얼굴로 밝게 살아줘서 엄마는 기뻤다'구요." 그랬을 것이다. 평생 남편의 긍지를 아내의 자긍심으로 지키며 두 아들을 잘 키워낸 김혜숙 님. 필리핀 봉사현장, 한인행사장에서 은빛 머리를 가지런히 쪽을 진, 사람들을 향한 눈가에 미소가 고운 한분을 만난다면, 신분증을 보지 않더라도 70대가 되셨을 '장한 어머니' 김혜숙 님이 분명하다.

■ 취재 : 이재연 기자(shescom@hanmail.net)

[평범한 교민의 특별한 릴레이 인터뷰]는 교민사회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교민들의 건강한 삶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 주에 인터뷰하신 분이 다음 취재원을 추천, 릴레이로 진행됩니다.

자랑스런 공사인

홍재학(4기 사관)

- 1964년 공사교에 최신 초음속 풍동기를 미 공군으로부터 얻어 설치하는데 성공했다.
- 1972~'78년 공사교 교수의 신분으로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개발에 참여하여 성공함으로써 공사교의 명예를 선양하는데 기여했다.
- 1976~'82년 다목적 초음속 무인항공기를 개발하여 오늘날 무인항공기 제작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했다.
- 1991년~'96년 인공위성 개발에 도전하여 "아리랑 제1호"를 개발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아리랑 제2호"를 자체개발하는데 밑거름이 되어 공군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 1999년 공사교의 항공우주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개인 자금 2,000만원을 희사하여 "항공우주진흥기금"을 설립하고 사교의 항공우주분야 학술연구개발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2002년에도 500만원을 추가로 출연하여 기금을 2,500만원으로 증액한 바 있다. 2000년 한국 항공우주학회에 2,000만원을 출연하여 한국의 항공우주분야 연구 개발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항공우주개발상을 받은 바 있다.

자랑스런 공사인으로 선정된 소감

우리 동기생회 회장인 박병순 장군이 자랑스런 공사인 후보로 본인을 추천한다고 해서 그런 것이 있는가 싶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는데 공사총동창회 사무총장으로부터 자랑스런 공사인으로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막상 받고 보니 "과연 내가 공사의 그 많은 훌륭한 동문들 중에서 이러한 대접을 받을 만 한가?"라는 스스로의 질문 앞에 많이 부족함을 통감하게 된다. 그러나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인 것을 어찌 하겠는가? 지금부터라도, 비록 조그만 일에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자위해 본다. 또한 이러한 일을 계기로 짧은 시간이나마 그 동안 내 일생을 뒤돌아보게 되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항공에 종사하는 사람을 항공인이라고 하며 크게 두 분야로 분류된다. 첫째는 항공기를 운용하는 사람들과 둘째는 항공기를 설계하고 제작하는데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나는 공군사관학교에 입교하면서 위의 첫 번째 분야의 항공인이 되겠다고 다짐을 했으나 어찌하다가 두 번째 분야의 항공인으로 아주 긴 세월을 보내게 되었다. '57년에 공군사관학교 교수요원으로 민간대학 파견 교육과정에 선발되어 항공공학과를 택함으로써 이 길로 들어선 것이다. 그래도 공군과 가장 가까운 학문을 하고 싶어서 여러 전공 분야 중에서 사회적 효용성이 적다고 볼 수 있는 항공공학을 택하게 된 것이리라.

공사교의 항공역학 실험실에 그 당시 한국 최대의 초음속 풍동을 설치, 운용하였으며 항공우주학회의 활성화에 노력을 경주하던 중, 70년대 초 "자주국방"의 지엄한 명령으로 국방과학연구소로 적을 옮겨서 지대지 유도탄과 무인항공기 개발에 10여년 간 심혈을 기울인 것이 참으로 잊을 수 없는 내 인생의 일부로 자리잡고 있다. 90년대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도 민간부문에서 항공우주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정부 출연연구소 설립을 추진하였으며 '91년부터 5년간 한국항공우주연구소 소장으로서 다목적 실용위성(아리랑 1호) 개발과 사운딩 로켓 개발을 시작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우주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0년간의 국가적 우주개발 계획을 완성하였다.

이러한 일들을 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정년퇴직을 한지도 10년 가까이 됐다. 내 인생에서 한가지 확실한 것은 40년간 오로지 항공우주분야에서 고집스럽게 일해 왔다는 것이리라.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융통성 없는 바보스러운 인생을 살았고 또, 달리 생각하면 자랑스런 공사인으로 선정된 이유가 될 수도 있다고 자위해 본다.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금년에도 동작동 현충원에 잠들어 있는 13위의 동기생 묘 앞에 머리 숙여 그들의 명복을 빌었지만 진정으로 자랑스런 공사인은 그들이 아닐까?

각 기생회/미주지회 동정(動靜)

정해영(공사 1기)

지난 4월 13일(수) 11시경 전철 · 서울대역 매표소앞 공간에 모여든 1기생들의 수는 13~4명에 이르렀는데 모두들 평균수명을 훌쩍 넘긴 터라(76세 전후) 노인 티가 나기는 하지만 그런대로 활기에 차 있었다.

평년보다 2주나 끌어온 늦추위도 한물 간 데다가 제법 날씨가 화창하여 연초록 움이 싹트는 봄기운에 덤으로 사는 고목에도 물이 오른 것이리라.

그뿐인가. 관악산 산행의 즐거움이 동심을 자극하여 서울대행 버스에 오를 때도 빈 자리가 안보이자 선뜻 양보해가면서 다음 차에 같이 타고 앉아서 담소하며 가는 느긋함을 보였으니 말이다.

이윽고 관악산 등산로 입구 매표소 앞에서 3명이 합류하여(오찬 때 1명 추가) 삼삼오오로 걸어가며 새봄의 정취를 나누다 보니 다리가 불편한 사람도 별 탈 없이 목적지에 다다르고 있었다.

숲속에는 분홍빛 진달래가 여기저기 피어있고 수목의 새순이 아직은 여린 모습이라 간지러운데 하천에 흐르는 맑은 물소리를 들으며 관악호수공원에 이르니 청정한 호수물만큼이나 쾌적하기 이를 데 없다.

거기서 일행은 중앙을 가로지른 횡단 구름다리를 거쳐 한복판에 세워진 세키 높이 검은 입석바위를 감상하다가 건너간 지점에서 순조대의 詩書畵三絕로 불린 자하 · 신위(紫霞 · 申位) 시인상 계시 문을 읽으며(자하란 그곳 지명임을 알게 됨) 정담을 나누고 쉬었다가 내려오니 오리구이 정식 밥맛이 꿀맛일 수 밖에…….

아무튼 이 모든 시나리오는 우리 鴻友會(1기생회) 4대 회장인 최규순 장군의 사전

배려와 정성이 담긴 작품임을 우선 밝혀두기로 한다.

이는 역대 회장(손주현, 조장성, 김영환)들의 창의적이고도 헌신적인 봉사정신을 이어받은 결과라 하더라도 하루가 다르게 늙어가는 동기들을 배려하는 최 회장의 자상한 사전계획과 진행 솜씨는 하나하나 정성이 담겨있어서 벌써부터 종신회장으로 삼아야 한다는 소리를 감지할 수 있게 하니 그만이다.

지면관계로 그 중 몇 가지 사례만 들어보면 지난 '03년 3월의 호국인물로 선정된 고 임택순 동기(공군대위)의 전쟁기념관 주최 현양식(顯揚式) 때에는 역대 참모총장님을 위시하여 많은 참전 선후배님들과 같이 고인을 추모하는 대열에 앞장서서 그 전공을 높이 기린 공식행사를 원만히 치른 후에 별도로 오붓한 동기모임을 가지고 살아남은 동기들의 우정과 고인과 연관된(유족은 미국거주) 기탄없는 정담을 나누게 한 것이 그것이다.

그러다 보니 '04년 11월에 같은 장소에서 선례에 따라 열린 고 고광수 대위 현양식 때에는 고인의 형제분들이 5~6명이나 참석하심으로써(최 회장의 정중한 안내사신) 추모의 정이 뜨거웠는데 이때 불참한 큰 조카되시는 고재혁 욱일산업(부산)대표께서는 사전에 1기생을 위한 격려금(300만원)까지 보내온 사실에 놀라기도 했다.

한편 미국 LA에 거주하던 고 마종인 동기가 중풍으로 8년 6개월 만에 영면(永眠)하자 유족연금 받을 권리가 미망인 길 병원 여사(미국 시민권자)의 국적을 문제 삼아 상실되었다는 국방부 직원 통지를 받은데 대해 순리대로 진정 및 건의서를 1기생회 명의로 '03. 5. 28.에 제기한바 동년 10월에 '국방부 민원 회신'과 11월 21일의 '국방부 유족연금 회신'으로 말끔히 수리되고 일반화시킨 업적은 높이 살만한 쾌거임을 자랑할 만하다.

*이때에는 길 미망인이 300만원의 찬조금을 본회에 보내오기도 함.

그러다 보니 회원들의 사기가 올라 연회비 외의 특별찬조금이 늘어나 최 회장의 30만원을 위시한 '04년도 총액이 2,685,000원에 달한다.

한편 월례회 모임으로 말하면 작년 한해만 보더라도 봄에는 청남대를 비롯한 청원허브농원과 청주직지박물관, 일산 호수공원, 제부도일원, 6월에는 국립묘지 참배 및 헌화(17구 : 전교장 2구 포함), 가을에는 낙성대일원, 오이도 일원, 고성351고지 추모행사 등 다채롭다.

그리고 올해의 계획도 연 초에 이미 확정해 놓았는데 3월에 안면도 일원을 다녀왔고 4월에 관악산, 5월에 화성 제부도(그 고장 출신인 김순경 동기의 자원초대형식), 6월에 국립묘지 참배 및 헌화, 9월에는 최 회장의 장녀인 최선애 인천계산여고 교장의 주관으

로 전적인 효도관광의 날로 자청하고 있어서 매우 이채롭고 감동할 일이다.

*그간에 이동시 마다 좋은 버스를 실비로 주선해옴.

그런데 여기서 불가불 본회의 회원 현황을 밝혀야 하는데 그러자니 매우 씁쓸해지는 감회를 감출길이 없어지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즉, 총 83명 중 전사자-4명과 순직자-6명을 포함한 35명이 이미 영면(永眠)한데다가 해외로 이민간 14명을 빼야하기 때문에 국내에는 고작 34명의 생존자만 남아 있으니 말이다.

그뿐 아니라 국내-34명 중에서도 지방거주자-3, 중환자-3, 와병자-2, 칩거자-2, 고정 불참자-4 등 14명이나 못나오기 때문에 결국 모일 수 있는 인원은 고작 20명인데다가 월평균 16명의 참석률 보이고 있는 현실이니 딱하지 않은가.

즉, 적게는 13명이고 많아야 19명 선인데 그나마 김영환 전 회장이 청주에서 열심히 참석해준 덕이요 준회원인 윤승철 동지의 가세 덕임을 밝혀둔다.

물론 소수라고 해서 그 중심에 흐르는 우리 1기생의 소원이나 기세까지 약해졌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생각이다.

이를테면 그때그때 화두가 저마다 나름대로의 경륜(장군 : 60%)에서 나온 애국충정을 토해내게 마련인데다가 개중에는 입에 거품을 물고 절박한 시국문제에 대한 투사현상을 보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리라(양심의 소리로 자부).

그 결과로 채택된 것이 소위 참여정부의 '친북반미 성향' 에 따른 안보와 경제기반 퇴조를 막으려는 '반핵 반김 시위대열' 에 작년 초부터 적극 가담하고 찬조한 것이라든지 금년 들어서도 안보 및 경제 살리기 국민운동에 참여하고 후원한 기록들이 그것이다.

실로 우리 1기생은 당대에 광복과 건국을 지켜본 감격 속에 1949년 6월 군에 투신한 이래 불의(不意)의 6 · 25남침을 겪으면서 권토중래하여(34명의 전투기조종사가 되어 총 1,640회 출격) UN공군과 같이 참전함으로써 무공을 세우고 그 후 공군현대화에 크게 기여한 것을 큰 보람으로 여기고 있다.

그리고 예편 후에도 산업화대열에 적지 않게 참여하여 오늘에 이르렀는데 이를 기득권층으로 몰아 때리면서 '반민족 반통일 세력' 으로 둔갑시키려 든다면 이를 좌시할 수 없음이 자명한 것이다.

여기서 지난 4월 21일자 동아일보에 게재된 신지호 교수(서강대 · 자유주의연대 대표)의 칼럼에서 잘 적시된 '집권세력, 북한인권나 몰라라와 사이비공조 이젠 그만둘 때' 라는 논평에서 '누가 반민족 반통일 세력인가' 에 대해 명쾌한 평가를 내려주어서 고맙지만 우리는 앞으로도 공군을 비롯한 국군을 사랑하고 자유대한의 선진화로 북한이 자진해서

편입해 오도록 하는 차원까지 철통같은 한미 동맹기조위의 안보와 번영을 구가하게 되기를 소원해본다.

따라서 우리 1기생의 소원은 그토록 목숨을 걸고 지켜온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이나 헌법수호를 전제한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미력하나마 지켜내는 일이 그 첫째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리고 둘째로는 우리가 그처럼 사랑하고 충성을 받쳐온 한국공군이 '하늘로 우주로' 라는 구호에서처럼 비상하여 그 기량이나 장비면에서 시이 적절한 정예화로 조국의 영공을 지켜내는 일에 지장이 없도록 애정을 가지고 성원하는 일이다(공사교발전기금 연 120만원 계속지원).

끝으로 노병은 죽지 않고 사라진다! 라고 말한 더글러스 A. 맥아더 원수의 명언에서처럼 황급히 우리 곁을 떠난 고 강연직(기독교) 동기는 '04. 5. 19. 최 회장과 같이 가벼운 관악산 아침등산을 하고 무사히 내려온 노상에서 몸이 좀 피곤하다고 맥없이 주저 앉더니만(심근경색) 그대로 가버린 사례가 그토록 꿈같거니와 지병으로 '04. 11. 6.에 미국 · LA에서 영면한 고 김승석 동기의 명복을 아울러 빌면서 아쉽지만 이만 줄이기로 한다.

동기생 근황 및 활동

1. 장기간의 투병으로 심한 고통을 겪고 있던 송도빈 동기생은 지난 일산 등산모임에서 가벼운 등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어 동기생들과 반가운 산행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 외 최찬정, 이경준, 김득만, 성재향, 엄영호 동기생들도 전에 비하여 좋은 편입니다. 하루 속히 완쾌하시기 바랍니다.

2. 서응석 재미 동기생이 20여년 만에 내외와 함께 고국을 방문하여 국내 여행 및 동기생들과 즐거운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외 재미 동기생들도 건강하다고 합니다.

3. 스승의 날에 즈음하여 신상철, 박원석 전 교장님을 모시고 오찬을 함께 하며 뜻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분 다 건강하신 편입니다.

기생활동

1. 등산모임

정봉주 회장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매주 월요일에 실시하던 등산모임을 매주 금요일로 변경하여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장소도 대모산 뿐만 아니라 일산, 충남 연기군 김상락 목장, 경북 의성 이병식의 문화재 지정 가옥 등으로 폭넓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고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2. 바둑모임

김상곤 회장을 중심으로 매월 1, 3주 목요일 오후 1시반에 사당 전철역 10번 출구 앞 바둑타운(4층)에서 연중무휴로 만나고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골프모임

매월 말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골프의 특성상 타모임에 비하여 복잡하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수고해 주시는 안석기, 백수현 동기생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4. 낚시모임

매주 금요일에 실시하고 있었으나 등산모임과 중복되어 매주 월요일로 변경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부곤 회장께 통보바랍니다.

편집인 알림 : 이메일로 전해 온 해외거주 동문들의 동정을 생생하게 그대로 소개한다.

서부지회(LA)

제 1신 :

지난 1월 모임에는 건강이 좋지 않은 동문들과 멀리 샌디에이고로부터 윤응렬 동문 부부와 1기 천영성, 백주현, 이배선 동문을 비롯한 59명의 동문이 참석하여 화기애애한 신년 모임을 가졌습니다.

2005 첫번째 정기모임 결과보고

일자 1. 30. 2005. 장소 : J J Grand Hotel

참석자 현황

천영성, 백주현, 이배선, 최장용, 원병식,

정병철, 홍두표, 박경원, 박병양, 송태익, 이희찬, 조영근, 김종국, 최영민, 배종철, 온성철, 이규성, 홍연용, 김동섭, 박문기, 서응석, 최권묵, 남희수, 진일범, 염동진, 윤응렬, 김문숙, 심인태, 김태석, 김재달(59명)

동문소식 및 모임안내

1. 최영민(3기) 동문 책발간. "역사를 알면 세계가 보인다"
2. 원병식(2기), 남희수(11기) 동문 오랜만에 참석
3. 김태석(10기), 김재달(10기) 동문 한국에서 방문하여 참석
4. 조영근(3기) 동문 개인 사진전 개최

때때로 지나간 세월을 되돌아보며 추억 속에 잠겨 보기도 하고, 또 현재를 열심히 살아가는 동문들의 만남은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제 2신:

동문귀하

동문 선배님 그간도 잘 지내셨죠? 요사이 날씨가 변덕스러워 기온차가 많이 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 모임에는 24명의 동문들이 참석하여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2시간여 동안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간 건강이 좋지 못했던 Mrs. 정병철 동문과 Mrs. 조영근 동문도 참석해주셨습니다. 이희찬 동문께서는 10여일 전에 허리수술을 하고 나오셨습니다.

참석하지 못한 동문들 중에 거동이 불편하거나 불편하신 분이 계시면 서로 전화로 위로도 하고 동문 회장단에게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Mrs. 김문숙(고 김승석 동문 부인)께서도 참석하였으며 앞으로도 모임에 계속 참석을 약속하셨습니다.

윤 장군님과 1기 선배님들이 참석치 않아 모두들 아쉬워하며 걱정(?)하였습니다. 최영민, 최병용 동문께서 책을 발간하였으며 동문들에게 도네이션하여 주셨습니다.

2005 두번째 정기모임 결과보고

일자 : 2005. 5. 15. 12:00~14:10

장소 : 용수산 한식당

참석자 현황

최장용, 정병철, 송광헌, 박경원, 김진화, 송태익, 이희찬, 조영근, 김종국, 최영민, 배종철, 온성철, 이규성, 홍연용, 박문기, 안병문, 조희창, 최병용, 최권묵, 남희수, 진일범, 염동진, 김문숙, 심인태(44명)

회비 및 도네이션(달러) 현황

송광헌 100, 최영민 100, 이규성 200, 조희창 100, 남희수 100, 식사비 940, 기타 선물비 135. 지출 1,075

동문소식 및 모임안내

1. 최영민(3기) 동문 책 발간. "역사를 알면 세계가 보인다" 35권 증정

2. 최원용(5기) 동문 책 발간. "지구촌 분쟁 사례집" 12권 증정

3. 최장용(2기) 동문 막내아들 결혼식(6. 18.)

4. 6월 삼군사관학교 골프 모임 날짜 변경 [6/7 → 6/29(수)]

올해는 전체적으로 야유회를 갖기는 조금 힘들 것 같은 생각입니다.

다음 모임은 더위가 조금 지난 9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 회장 진일범(16기, 310-594-1406), 수석 부회장 염동진(18기, 909-598-4387), 부회장 심인태(30기, 213-700-2566, 661-702-8782). E-mail : intaishim@hanmail.net

지난번 보내주신 회지는 전회원에게 메일로 보냈으며, 필라델피아(3기 문병선), 뉴욕(26기 이철우)에도 메일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시 한번 12차 총동창회 운영 회장단에 축하와 감사를 드리며, 기회가 되어 이곳을 방문하시게 되면 꼭 연락하시어 즐거운 시간도 함께 하시길 기대합니다.

로스엔젤레스에서 10. 10. 2004

동부지회(NEW YORK)

제 1신 :

안녕하십니까.

오문영 동기생의 소식을 받고 연락드립니다.

저는 26기 이철우라고 현재 뉴욕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동문들을 만나고 싶어서 동기생이 공군무관으로 있을 때 명단을 모으고, 기타 보라매회 명부 등을 모아 정리한 결과 현재 1기, 2기 분을 비롯하여 37기 막내까지 총 36명의 동문들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동문들이 성공적으로 미국생활에 적응하여 풍요로운 삶들을 누리고 있으며, 동문들간에도 훈훈한 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현재 3기 사관 문병선 선배님이 회장님을 맡고 계시며, 제가 보필을 하고 있습니다. 12기 사관은 진태선, 김경중 두선배님이 계십니다. 두분 모두 동문회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지난 연말에 27기 정철환 동문집에서 송년

모임을 가졌는데, 열두 가정 24명이 모여 새벽 1시까지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임 사진은 http://tzar.physics.sunysb.edu/lee/kafa/kafa.html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20일 36기 하명철 동문이 뉴저지 패터슨 중심가에 M. Sneaker라는 스니커 가게를 Open하여, 동문회에서 Palm Tree Plant를 선물했습니다.

올 3월 중에 다시 모임을 가질 예정이며, 특히 올해는 많은 골프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육사, 해사와도 연결이 잘되어, 삼군사관학교 합동모임도 많이 자주 모이는데, 공사가 다소 숫자는 적어도, 참석 인원도 많고 또 단결도 잘 되어서 많은 부러움을 삽니다.

공사 출신들이 모두 잘되신 것을 보면 역시 공사의 교육이 우수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연로하신 선배님들께서 총동문회와 사관학교에 관하여 궁금해 하십니다.

자주 연락드리겠습니다.

제 2신:

정민남 선배님 반갑습니다. 저도 드디어 한국 이메일 주소를 만들었으니 앞으로는 메일이 망가지는 일은 없을 듯합니다.

지난번 보내주신 동창회지와 기타 품목들 잘 받았습니다.

대부분 동문들이 미국에 들어온 과정과 배경은 달라도 하나같이 성공하여 편안한 삶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삼군사관학교 졸업생들이 자주 모이는데 공사가 다소 숫자는 적어도 참석 인원도 많고 또 단결도 잘 되어서 많은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공사 출신들이 모두 잘 되신 것을 보면 역시 공사의 교육이 우수했던 것 같습니다. 12기 사관 진태선 선배님 핸드폰은 (914)261-1000이고, 김경중 선배님은 (914)420-8677입니다.

이제는 메일 주소를 바꾸셔서 보내 주십시오. 한글은

bright.computer@hanmail.net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미국 동부지역 소식 자주 연락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뉴욕에서 이철우 드림

편집인 소개 :

다음 신문기사는 뉴욕 Hicksville-Jericho Rotary Club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철우 (26기 사관) 동문에 대한 신문기사

심장병 어린이 한국서 수술 추진

뉴욕 로터리국제클럽 세종심장전문병원과 가계약

뉴욕의 로터리국제클럽이 심장병 어린이 수술을 한국에서 집행하도록 추진하고 있어 한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로터리클럽은 1975년 국제협회 산하 '생명의 선물(Gift of Life)'이란 부속 단체를 만들어 심장병 질환 어린이들에게 무료 수술을 제공하고 있다. 이 수술 첫 케이스로 한국 어린이 5명이 미국으로 초청돼 세인트 프랜시스 수술을 받고 새 삶을 얻은 바 있다.

첫 시술 후 30년만에 이제는 한국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것은 한국의 의료기술이 그만큼 발전한데다가 수술비가 미국보다 저렴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롱아일랜드 힉스빌·제리코 지구의 회장으로 한인 이철우 씨가 선출되면서 한국에서 시술 계획이 구체적으로 진행돼 최근 한국 부천의 세종심장전문병원과 가계약을 맺는 단계에까지 다다랐다.

이 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할 경우 케이스당 6,080달러면 가능하고 이에 체류비 및 수술 전후의 입원비 및 약 등이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철우 회장은 17일 "한국에서 시술 프로젝트가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며 "11월께 수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뉴욕의 로터리클럽 각 지구들은 기금 모금에 나섰다.

이번에 수술을 받는 어린이들은 몽고의 심장병 환자 7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로터리클럽이 몽고 어린이를 선정한데는 한국과 중국에서 피해를 보는 황사현상이 몽고의 벌판에서 시작된다는 과학자들의 지적으로 이곳에 '몽골발풍림조림사업' 추진과 일련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국로터리 지구의 윤상구 총재는 이 사업 추진을 위해 몽고를 방문한 바 있으며 이 사업은 한국로터리 지구는 물론 뉴욕을 포함한 미국의 로터리클럽에서도 참여하고 있다.

<이민수 기자>

Hicksville-Jericho Rotary Club Celebrates 100 Years of Rotary

Rotary International celebrated its 100th Anniversary on Feb. 23. As part of this celebration, the Hicksville-Jericho Rotary Club made a $500 donation to The Center for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se funds have been designated to provide supplies and plants for the Adult Program Gardening project. Each year clients from the adult program plant and care for a garden at their Hicksville location. The check was presented to Paul R. Breuer, senior vice president of North Fork Bank and board member for the Center for Developmental Disabilities.

"We were happy to support this worthwhile program," said David Lee, president.

"'Service Above Self' is the motto of Rotary, giving back to the community is one way to honor the 100th Anniversary of Rotary International."

Rotary is made up of business and professional leaders who work to better their community and build understanding and peace in the world. Rotary is a non-political, nonreligious humanitarian organization. If you are interested in learning more about Rotary, the oldest service organization in the world, called Donna Rivera-Downey at 741-2550, ext. 260 for more information. The Hicksville-Jericho Rotary meets every Thursday at James Dean Restaurant, 392 Woodbury Road in Hicksville.

Paul R. Breuer, senior vice president of North Fork Bank and board member for the Center for Developmental Disabilities; Donna Rivera-Downey, executive director of Girl Scouts of Nassau County; Ann Torciva of Friends Travel; David Lee, president of the Hicksville-Jericho Rotary Club and Bright Computers; Jo-Ellen Cole of North Shore-LIJ Hospitals at Plainview with(back row) Harry Peltz, attorney; James Bentson, chiropractor; Kevin Asher of the State Bank of Long Island; William Schuckmann of the Hicksville Water District; and **Jane Reich of the Center for Development Disabilities.**

홍동장학 소식

- ▣ 정기총회
- ▣ 적립기금 및 운영금 현황
- ▣ 회비납부 안내
- ▣ 제12차년도 찬조현황
- ▣ 제12차년도 운영결산
- ▣ 전역자 현황
- ▣ 알립니다
- ▣ 주소변경
- ▣ 편집후기
- ▣ 기고안내

정 기 총 회

회칙 제4장 12, 13, 14조에 의거 12차년도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정기총회가 6월 22일에 공군회관에서 개최되었다. 회원들이 참석한 정기총회에서는 제13차년도 회장단을 선출하고 회칙 개정을 심의 의결하였다.

회원현황

임관 총인원 : 8,011명(53기 202명 포함)
현 재 인 원 : 7,353명(별세 7명)
예비역 인원 : 2,450명
※ 애로사항 : 정확한 인원파악 불가, 회원 미등록 인원 다수

주요업무

가. 회장단 부대 방문(8개 부대)
2004년 후반기 : 공군본부, 공군사관학교, 작전사령부
2005년 전반기 : 강릉비행단, 사천 비행단, 해군교육 사령부, 제주도 308대대, 김해기지

나. 주요 행사 참석
재향군인회 범국민 안보협의회 : 2004. 9. 20.
보안법 철폐 반대 집회 : 2004. 10. 4.
3기 사관 임관 50주년 행사 : 2004. 11. 6.
사관학교 졸업/임관식(사관 제53기) : 2005. 3. 8.

다. 본회 방문자
공군참모총장(2회), 천영성(1기 사관/미국 거주), 이동석(13기 사관/미국 거주), 기타 국내거주 동문 다수

라. 회지발간
발간 횟수 : 2회(2005. 1. 1./7. 1.)
발간 부수 : 3,500부에서 7,500부로 증간
발행 면수 : 60쪽에서 80쪽으로 증편

마. 비품 구입 : 컴퓨터 1대, 공사 총동창회 조기

적립기금 및 운영금 현황

1. 평생회비 납부현황

가. 평생회비 완납 기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2. 12차년도 평생회비 납부자 현황

기간 : 2005. 1. 1.~2005. 6. 30.

기수	현재 인원	납부 인원	미납 인원	납부자 명단
4	64	64	0	김기수, 김종무, 온수복, 이규성, 이상준, 홍연룡
16	56	41	15	
17	60	47	13	
18	64	56	8	공명석, 김현수, 한창환
19	72	44	28	박규복, 윤영원
20	94	46	48	
21	97	36	61	
22	103	31	71	김철구, 최호준
23	109	34	77	김경순
24	130	53	77	하원훈
25	124	32	92	김찬환, 김호식, 윤학수, 이성우, 하왕규
26	123	20	103	강희규
27	125	15	110	박한진
28	122	14	108	김항수, 서근영
29	141	34	107	한봉완
30	152	20	132	강구영, 고영문, 김무겸, 김종선, 양승주, 이연수, 한상덕, 서휘석, 손한섭
31	166	9	157	김동철
32	168	5	163	김영수
33	173	14	159	박진용
34	167	9	158	김학준, 조현상
35	252	5	247	
36	256	7	249	이준모, 임이철
37	252	2	250	
38	233	3	230	

적립기금 및 운영금 현황

기수	현재 인원	납부 인원	미납 인원	납부자 명단					
39	222	1	221						
40	243	0	243		47	201	0	201	
41	242	1	241		48	193	103	90	
42	277	0	277		49	199	0	199	
43	271	0	271		50	193	0	193	
44	211	4	207		51	203	0	203	
45	211	0	211		52	203	0	203	
46	230	0	230		53	202	0	202	
合	현재인원 : 7,378			납부인원 : 1,547			미납인원 : 5,831		

※ 12차년도 납부자 : 78명(2005. 6. 현재) – 상반기(36명), 하반기(42명). 회비는 납부하셨으나 기수를 명기하지 않으신 박경진('04. 1. 26.), 현용희('04. 2. 25.), 김세창('04. 10. 4.), 회원께서는 기수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旣) 납부자 현황

2005. 6. 30.

기수	납 부 자 명 단
4	구자춘, 김석용, 김용주, 김재윤, 김환종, 박병순, 박상조, 박승준, 박예재, 박오화, 박웅진, 박재진, 박전하, 박차식, 배강희, 서극수, 서동렬, 신동만, 안우일, 양승문, 오수근, 유낙영, 유동천, 이래석, 이순요, 이시우, 이조한, 임병열, 장남춘, 장무익, 정구현, 정낙영, 정봉규, 정봉현, 정연봉, 정진모, 정헌국, 조경래, 조봉구, 조옥찬, 최병기, 최세천, 최준식, 한영규, 홍사학, 홍의태, 홍재학, 황규복, 김의경, 박찬득, 양신석, 김재두, 최영근, 유현주, 이종국, 신정식, 이우영, 조시중, 이형복, 이창원
16	강철수, 권명남, 김문기, 김성구, 김신흥, 김의림, 김정갑, 김정욱, 김종환, 김헌석, 김회동, 박성국, 박경웅, 박영기, 박영훈, 배정영, 배충정, 백동기, 서효창, 양길수, 오창모, 이상렬, 이선기, 이성우, 이수웅, 이재기, 임정빈, 장정동, 장진수, 전광남, 정해창, 주창성, 지양일, 최동철, 최명상, 최양웅, 신무광, 이은양, 정준식, 최동빈, 조창조, 강안석
17	강희간, 고영섭, 고종무, 권혁중, 김문수, 김상재, 김석우, 김용수, 김운태, 김응수, 김익창, 김재수, 김종현, 김준수, 박용택, 배종수, 서정윤, 송대성, 안광수, 어수연, 원철희, 유성열, 유정웅, 유현준, 윤병인, 이규대, 이규희, 이문호, 이성율, 이융대, 이한호, 이철희, 전영배, 장상용, 장호근, 조규식, 차옥환, 한형택, 황창번, 박윤교, 손종호, 차선규, 최복현, 최석권, 임흥규, 상석곤, 신영실
18	곽조휘, 강재필, 고정훈, 구세환, 구정회, 곽은용, 김두연, 김성진, 김종식, 김재수, 김재운, 김진철, 김태곤, 김현규, 나금복, 류효열, 박경점, 석현수, 선치수, 손인익, 송희전, 신명호, 신표근, 엄이웅, 오인성, 오병한, 오환근, 윤관중, 윤봉수, 이기택, 이봉길, 이선희, 이영준, 이정욱, 이진학, 이태섭, 이하진, 장영수, 장용주, 전영훈, 정원태, 최석상, 최태호, 천기광, 허 한, 김정수, 박문현, 조남홍, 김재광, 진윤섭, 정운태, 정용진, 김중하, 조인행

적립기금 및 운영금 현황

기수	납 부 자 명 단
19	김덕실, 김명립, 김영철, 김인열, 김정진, 김현진, 박 열, 박희채, 백철인, 서경수, 손영수, 손정환, 양홍진, 유병구, 유병권, 유승렬, 윤정채, 이균신, 이강욱, 이계오, 이규찬, 이달호, 이성율, 이송호, 이영순, 이인형, 이종관, 임종태, 장희천, 정성진, 정하섭, 조명래, 조용희, 지광식, 편세영, 하석태, 홍강표, 김복만, 박상인, 전재구, 김만철, 민주동
20	강만수, 김동래, 김삼교, 김성두, 김성일, 김오비, 김우식, 김정기, 문태일, 박 영, 백재현, 손준영, 이정학, 이영원, 이영희, 이재원, 이종록, 이치훈, 장성문, 정제택, 정철호, 조태연, 차종권, 최삼용, 한광성, 한길성, 한준수, 허원욱, 홍상열, 이병기, 이석규, 임근배, 김점태, 이사룡, 김광영, 안상복, 박동형, 김규식, 김덕선, 이정호, 김원춘, 김영한, 강유춘, 전호휜, 이철주, 유선종, 서일수
21	강남식, 권 근, 금기연, 금영수, 김상인, 김영배, 김영학, 김태욱, 명칠원, 민병홍, 박경석, 박희영, 배민섭, 배창식, 박천수, 성광준, 성봉환, 송동근, 윤희철, 이광영, 이광희, 이수남, 장성태, 정용운, 조오현, 한흥섭, 홍종백, 황사홍, 박건웅, 유관욱, 황성창, 김동기, 마순복, 김광진, 이 찬, 김태욱
22	강수준, 김은기, 남백우, 민형기, 배효직, 백계근, 손중열, 송인선, 우영운, 윤성기, 윤여동, 이경환, 이영하, 이용익, 이정석, 장현섭, 정갑순, 홍재근, 최병운, 최승열, 한종호, 류양수, 이광희, 한웅섭, 김재승, 임인빈, 오봉진, 김인식, 장영현
23	구본담, 강희창, 김성호, 김수환, 김우규, 김형선, 박종철, 이계훈, 이영덕, 이은수, 윤재원, 윤차영, 장석원, 정경모, 정규덕, 정대주, 최진수, 하창호, 조원건, 함경만, 김상문, 박종화, 윤남수, 이상진, 정회균, 정희진, 한규섭, 허일영, 이수현, 이동호, 최상익, 장창연, 권오봉
24	강철혁, 고재봉, 권오석, 공윤석, 김광묵, 김명익, 김신원, 김익경, 김재철, 김태열, 나용곤, 나재남, 노성래, 류동수, 민경식, 박준홍, 박진열, 백영남, 백윤호, 신진섭, 송기백, 안창수, 안빈용, 염경식, 이기용, 이월중, 이영재, 이영종, 이웅상, 이재강, 이철순, 전남채, 정남주, 정성화, 정점조, 정필훈, 주신호, 주종수, 천두봉, 최재호, 최재희, 최종용, 최홍진, 허봉재, 현일수, 홍순화, 송광호, 이봉운, 백영남, 김상철, 김동진, 김득환, 설중일
25	강신환, 고덕천, 구도권, 김국휘, 김진태, 김종흠, 김정렬, 류홍규, 박우성, 박춘한, 손명환, 심재명, 오창환, 윤양로, 윤용현, 이귀형, 이석찬, 이성재, 임우규, 장래환, 장희태, 최미락, 최승규, 홍건표, 권용국, 성신모, 김종원, 이승구
26	김태영, 박인규, 배충영, 변종돈, 송길수, 심상철, 유지훈, 윤덕중, 임상현, 최병학, 최지수, 허종순, 이봉준, 전성관, 이상길B, 기예호, 오중기, 박중석, 성삼식, 박성보
27	고덕규, 고용하, 권오성, 김만호, 김용상, 남은우, 박창권, 손태용, 최동환, 한병국, 홍성은, 신해철, 이영만, 박경규, 이무섭
28	김남수, 김주언, 신영덕, 윤 우, 음종민, 최상일, 하태직, 김명호, 조민식, 이태용, 황신섭, 김도호
29	김경호, 김석종, 김성전, 김영권, 김영본, 김영철, 김원규, 김철생, 나충렬, 박성기, 백승욱, 송창석, 심동환, 심재광, 오승균, 오영봉, 오한두, 윤주혁, 이규복, 이병두, 이완식, 이일수, 이장근, 정남범, 최상철, 최승철, 한봉규, 홍상기, 홍승조, 홍재욱, 김융희, 김회영, 조병호, 전동기
30	강성호, 김원규, 김용환, 김진완, 장덕진, 정규호, 차주섭, 채종목, 이지영, 이경달, 심인태
31	강경한, 김철승, 신재현, 조환기 김홍준, 임봉수, 장영익, 박항윤
32	김현곤, 심부수, 최원기
33	박수철, 유준종, 위강복, 이성우, 이경재, 이재홍, 장경식2, 정영철, 정회주, 심동섭, 이동교, 한상균, 장병노

적립기금 및 운영금 현황

기수	납 부 자 명 단
34	감수봉, 송광혁, 안상철, 안선환, 양희종, 정상길, 정찬영
35	김종은, 민태기, 서완석, 강규식, 류영관
36	김성균, 김응문, 박종국, 박홍식, 나문관
37	이재섭, 최기명
38	이정호, 윤상보, 신보현
39	최정모
40	
41	김민호
42	
43	
44	고준기, 권기범, 박세순, 이강희
45	
46	
47	
48	강규영, 고관진, 고종진, 구민규, 구본곤, 구필현, 금규태, 길태원, 김강주, 김경민, 김년수, 김덕중, 김만중, 김민진, 김범준, 김상준, 김선규, 김성진, 김송현, 김시몬, 김인영, 김용숙, 김우현, 김재훈, 김주배, 김창민, 김철한, 김태호, 김홍석, 나정훈, 남택수, 문보언, 민병억, 박경준, 박정수, 박준영, 박찬역, 박한민, 박희수, 사재철, 소명섭, 손성진, 송영권, 송영민, 신 환, 신기영, 안상철, 안효훈, 양함주, 엄일용, 오상원, 원용창, 유 홍, 윤경식, 이광일, 이규동, 이기영, 이대연, 이동수, 이동훈, 이명선, 이무강, 이상준, 이석현, 이순재, 이우열, 이윤진, 이인호, 이정원, 이정훈, 이제영, 이종원, 이종훈, 이찬용, 이창종, 이태승, 이형주, 이효성, 임병철, 임병호, 임수홍, 임은수, 임창순, 장균홍, 장성진, 전대만, 정기만, 정인식, 정재훈, 조정훈, 조혁준, 채 석, 천영호, 최권석, 최규완, 최성호, 최성호, 최영기, 최재호, 추광호, 한영종, 허석희, 홍문기
49	
50	
51	
52	
53	

회비납부 안내

● 會員 회비 : 평생회비

- **20만원/제12차년도 정기총회에서 기존 10만원이었던 평생회비가 2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된 평생회비는 2005. 7. 1.부터 유효합니다(1회 납입으로 종료).

● 기별 분담금 : 2005. 7. 1. ~ 2006. 6. 30.

- 5기~12기 : 40만원
- 13기~33기 : 60만원

● 은행계좌

- 평생회비 : 지로용지 사용
  혹은, 우리은행 319-239049-01-001(예금주 : 공사총동창회)
- 기별분담금 : 우리은행 1002-430-210699(예금주 : 강신해 사무총장)
  ※ 매년 7월 1일부터 운영기수 변경으로 반드시 계좌번호 확인 후 입금

● 연락처(총동창회)

- 주 소 : 서울 동작구 대방동 358-1 공사총동창회 우편번호 : 156-808
- E-mail : airfa04@hanmir.com

전화 : (사무실) 02)823-1091, Fax : 02)823-1092
(사무총장) 011-701-0781, (집) 595-0781, (이메일) cptkang43@hanmail.net
담당여직원 : 016-9425-0516

제12차년도 찬조현황

협조와 지원에 감사합니다

1. 기별 분담금 찬조(임원기수 4기~32기)

	기 수 별	납 부 기 수
40 만원	4기~11기	완 납
60 만원	12기~32기	완 납

2. 특별 찬조

성 명	금 액	비 고
이한호	300만원	공군참모총장
이상훈	50만원	재향군인회장
김상태	50만원	전 공군전우회장
김인기	30만원	개인자격(3기 사관)
천영성	20만원	미국거주(3기 사관)
이광학	20만원	11차년도 회장
서동렬	10만원	재향군인회 부회장

3. 광고 찬조

기 관	금 액	비 고
한국광업진흥공사	200만원	사장 박춘택, 사장 박양수
한국석유개발공사	200만원	사장 이억수 전 총장
열린 탑 항공	50만원	사장 나오경

4. 운영기수(12기) 찬조

가. 12기생회 찬조 : 3천800만원

나. 총동창회 12기 이사 개별 찬조금(6월 30일 현재)

박춘택, 배양일, 박덕희, 이홍우, 정판종, 심재윤, 강영식, 김부수, 김영식, 김영웅, 김원인, 남승진, 민항식, 배기준, 박상철, 박원규, 신동윤, 안봉열, 우대석, 이명환, 이상경, 이상순, 이종득, 이종양, 전대우, 정민남, 최대식, 홍종건, 김문수, 김태규, 나광수, 박창길, 백광현, 엄수남, 우정수

제12차년도 운영결산

1. 적립기금

구 분	금 액	비 고
기금인수	334,423,070	11차년도
평생회비	7,800,000	
이자수입	12,075,131	
적립총액	354,298,201	12차년도

2. 운영금 모금

구 분	계 획	실 적
12기 찬조	38,000,000	38,000,000
기별분담금	15,800,000	15,800,000
회원찬조	3,000,000	4,800,000
광 고 비	4,000,000	4,500,000
이 월 금	2,000,000	2,000,000
계	62,800,000	65,100,000

3. 운영금 집행 현황

2004년 7월~2005년 6월 현재

항목	사 업 명	예 산	집 행	비 고
1	정기총회	4,000,000	3,853,000	우편료 추가
2	이 사 회	2,000,000	1,653,000	
3	회지발간	4,000,000	4,501,000	
4	총동창회장상	1,000,000	880,000	53기 소위 장지용
5	배지제작	500,000	500,000	
6	방 문	2,000,000	5,078,790	
7	간 담 회	5,000,000	5,078,790	신구 회장단, 이사 간담회, 자랑스런 공사인
8	조기제작, 조문	2,500,000	1,286,000	
9	임관 50주년행사지원	2,000,000	2,000,000	3기 사관
10	친선바둑대회	1,500,000	1,453,000	동문 친선
11	사무실임대료	2,000,000	1,675,430	토지, 전기, 난방, 보험료
12	운 영 비	6,500,000	5,665,000	사무실 운영
13	인 건 비	20,800,000	20,800,000	
14	해외동문지원	300,000	534,000	미주 동부, 서부
15	비품구입	700,000	540,000	PC 세트 외
16	이 월 금	2,000,000	2,000,000	13차 운영기수
17	친목단체화환	500,000	500,000	은나래 외 4개
18	예 비 비	5,500,000	5,395,000	
19	불우동문돕기	0	2,500,000	현역 3, 예비역 2
20	공사발전기금	0	2,000,000	
계		65,100,000	64,931,220	잔액 : 168,780

전역자 현황(기수별 전역자)

전역일	계급	성명	특기	기수
'05. 1.	대령	이은수	6709	23
	대령	김덕열	7009	25
	대령	윤재규	1409O	26
	소령	이동규	1407F	38
	소령	이봉구	1407H	34
'05. 2.	대령	민형기	1409O	22
	중령	황위준	1408F	28
	중령	김영철	2508	28
	중령	한정렬	1408F	27
	소령	서해원	1407W	37
	대위	김진한	4607	48
	대위	임은수	8007	48
	대위	김병일	4007	42
	대위	최원석	4607	48
	대위	오성훈	3007	48
	대위	구민규	4007	48
	대위	하종일	1707	48
	대위	정성갑	2507	48
	대위	이종훈	1807	48
	대위	오정귀	1807	48
	대위	송영석	1807	42
'05. 3.	대위	김태호	4007	45
	대령	박순홍	1409F	22
	대령	이강현	1409W	22
	대령	김동학	1409F	22
	중령	최세현	1708	32
	소령	황용태	1407C	37
	소령	백흠주	1407F	40
	소령	류승민	1407C	40
	소령	신동훈	1407F	40
	소령	심우성	1407F	40
	소령	임인성	1407F	40
	소령	장효성	1407F	40
	소령	조은우	1407C	40
	소령	김택의	1407C	40
	소령	한장희	1407C	40
	소령	김성림	1407F	40
'05. 3.	소령	이기원	1407F	40
	소령	장재윤	1407C	40
	소령	이성훈	1407F	40
	소령	김성규	1407C	40
	소령	한기홍	1407F	39
	소령	신준용	1407C	39
	소령	정지운	1407F	39
	소령	최창익	1407F	39
	소령	최영근	1407F	39
	소령	고성호	1407F	38
	소령	전태관	1407C	38
	소령	장창열	1407F전	38
	소령	김용익	1407C	37
	소령	진광호	1407C	37
	소령	박영민	1407F	37
'05. 4.	대령	이종관	1407F	22
	대령	권기춘	1407C	22
'05. 5.	소령	정문홍	1407H	38
	소령	권성범	1407F	39
	소령	양기현	1407F	40
	소령	임재진	1407F	40
	소령	정희종	1407F	40
	소령	최학순	1407F	40
	대령	유치호	1409F	22
'05. 6.	중령	신동익	6708	26
	소령	이창준	1407F	36
	소령	이창렬	4607	36
	소령	홍명기	1407F	37
	소령	문연식	1407C	39
	소령	백대현	1407F	39
	소령	최민진	1407C	39
	소령	조한성	1407F	39
	소령	김재운	1407F	40
	소령	이성태	1407C	40
	소령	손민수	1407C	40
	소령	이재환	1407F	40
수고하셨습니다.				

알립니다

결혼을 축하 드립니다(2005년 1월~6월)

1월	13기 이태규 차남, 18기 신명호 장남, 21기 김상인 장남
3월	22기 안중엽 장남, 22기 이원필 차녀
4월	3기 윤배옥 장남, 12기 나광수 장남, 15기 최욱 장녀, 22기 최승열 장남
5월	12기 이상순 장남, 13기 이동석 장남, 13기 조대길 차남, 13기 최인일 장남, 15기 김석호 자녀, 18기 이영준 장남, 18기 김재광 장녀, 18기 김태곤 장남, 20기 유선종 차녀, 21기 이경모 장녀, 21기 최천락 장남, 22기 장현섭 장녀
6월	7기 공영화 장녀, 15기 최욱 차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2005년 1월~6월)

월 일	기 수	성 명	비 고
2월 2일	3	김필원	부친상
3월 2일	21	이기원	별세
3월 25일	12	이홍우	장모상
4월 4일	18	이하진	별세
4월 30일	15	명정수	부친상
5월 4일	20	차광수	별세
5월 5일	12	심재윤	부인상

주 소 변 경

(2005년 1월~2005년 6월 현재)

기수	성 명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1	최규순	서울 서초구 잠원동 55-7 잠원청구빌라트 301	151-859	533-2485
3	심장섭	서울 종로구 평창동 344-5 요진빌라 702호	110-847	379-4433
3	김태석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606-1 주공3차(아) 301-1101	427-729	031-576-7229
3	이경영	서울 도봉구 쌍문동 522-1 아카데미빌라 303호	132-030	904-3397
6	김양진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 198-65 유창빌라 A-401	430-857	031-445-5402 016-726-8885
7	박용수	경기 용인시 신봉동 9011 LG자이2차(아) 217-804	449-150	031-897-9339
7	박태환	경기 의왕시 왕곡동 593 율곡(아) 103-301	437-740	031-456-7128
9	강복수	경기 용인시 죽전동 상현마을 반도보라빌(아) 105-705	449-540	031-897-1953
9	신도범	서울 강서구 가양2동 대림 경동아파트 104-1103	157-751	2668-5267
9	서철수	경기 용인시 구성읍 마북리 629 삼성래미안 1차 107-1303	449-557	031-285-4195
10	김홍래	서울 성동구 옥수2동 100 옥수(중앙)하이츠 107-304	133-765	2293-3287
10	홍성무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308 월드(아) 123-1602	404-775	032-567-2885
13	이강평	경기 용인시 신봉동 911 신봉마을 LG자이2차(아) 217-804	449-150	031-897-9339
13	최재구	경기 용인시 구성읍 상하리 652 수원동마을 쌍용스윗닷홈 206-1301	449-910	031-275-0374
15	이강섭	경기 안성시 서운면 오촌리 196	456-853	010-7178-1957
16	박영기	서울 동작구 사당2동 유성(아) 205-702	156-773	016-767-5054
16	이상열	경기 용인시 죽전1동 내대지마을 건영캐스빌(아) 903-1702	449-538	031-897-0034
17	유정웅	경기 용인시 구성읍 보정리 1019 대림(아) 111-701	449-941	031-263-0215
17	유성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호리첸시아 B-1801	150-949	782-8478
18	김진철	서울 마포구 도화2동 현대2차(아) 210-702	121-773	711-9625
18	정원태	서울 강남구 도곡동 467 삼성타워팰리스 A-3607	135-542	6203-9007
19	박상인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1가 진로(아) 104-404	150-750	018-268-0688
20	김정기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0 목동신시가지(아) 1032-401	158-770	011-9089-6339
20	김원춘	대전 중구 태평2동 422-7 버드네(아) 110-1503	301-780	042-524-4134
20	문태인	서울 강서구 화곡3동 1091 대우푸르지오(아) 139-102	157-013	928-9822
20	이용주	서울 서초구 방배동 2525 우성(아) 103-205	137-910	597-0319
20	임근배	대전 유성구 갑동 387-146 유성레지던스 A-202	305-323	042-822-5895
22	김인식	서울 영등포구 신길 6동 480 EL샤틀렛(아) 401호	150-842	842-7806
25	이성우	서울 금천구 시흥2동 벽산(아) 508?1001	153-766	6673-4953
28	황신섭	대구 수성구 사월동 510-2 시지6차태왕리더스 106-1205	706-917	053-802-4510
37	유용철	경기 고양시 마두1동 백마마을 삼성(아) 105-304	411-708	031-814-0924
38	김영재	경기 고양시 일산구 마두2동 강촌마을 동아(아) 111-301	411-715	011-957-2474

※ 주소 변경시 공사총동창회로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생 홈페이지 운영현황 소개

1. 공사총동창회 홈페이지 : http://www.공사총동창회.com
2. 각 기생별 홈페이지 현황

   9기(은하회), 11기(비성회), 12기(은성회), 15기(성익회), 16기(승운회), 18기(흑매회), 19기(태성회), 20기(청익회), 21기(여명회), 22기(쌍매회), 24기(웅비회), 27기(석로), 28기(애채회), 31기(한돌회), 32기(벽공회), 33기(비호), 34기(한울), 36기(한얼), 39기(까치놀), 40기(해밑), 43기(다솜)

기수별 동기생회 임원 변동사항

2기 부회장 : 채영현

6기 회장 : 이의재

11기 회장 : 신보언, 총무 : 한호석

17기 회장 : 윤병인, 총무 : 안광수

25기 회장 : 이정표

26기 회장 : 정전기

27기 총무 : 홍진기

29기 회장 : 이경남, 총무 : 한봉완

30기 회장 : 강구영, 총무 : 신완희

38기 회장 : 심재환, 총무 : 김봉주

39기 회장 : 여상기, 총무 : 한창옥

※ 임원단에 변동이 있으시면 공사총동창회로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희망입니다"

내 손에 펜이 한 자루 있다면 그것은
희망입니다

그 펜으로 글을 쓸 수 있고 그림을 그릴 수 있고
편지도 쓸수 있으니까요

내 입에 따뜻한 말 한마디 담겨 있다면
그것은 희망입니다

그 말로 남을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기쁘게 할수 있으니까요

내 발에 신발 한 켤레가 신겨져 있다면
그것은 희망입니다

그 발로 집으로 갈 수 있고 일터로 갈 수 있고
여행도 떠날 수 있으니까요

내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다면
그것은 희망입니다.

그 눈물로 가난과 슬픔으로 지친 이들의
아픔을 씻어 낼수 있으니까요
내 귀에 작은 소리
들려온다면 그것은 희망입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말과 아름다운 음악과
자연의 속삭임을 들을수 있으니까요

내 코가 향기를 맡는다면
그것은 희망입니다

은은한 꽃 향기와 군침 도는 음식 냄새와
사랑하는 이의 체취를 느낄수 있으니까요

내 곁에 좋은 친구 한 사람 있다면
그것은 희망입니다

그 친구에게 내 마음 털어놓을 수 있고
지칠 때는 기댈수 있고
따뜻한 위로도 받을수 있으니까요

내 가슴에 사랑하나 있다면 그것은
희망입니다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할수 있으니까요

- 좋은생각 중에서 -

편집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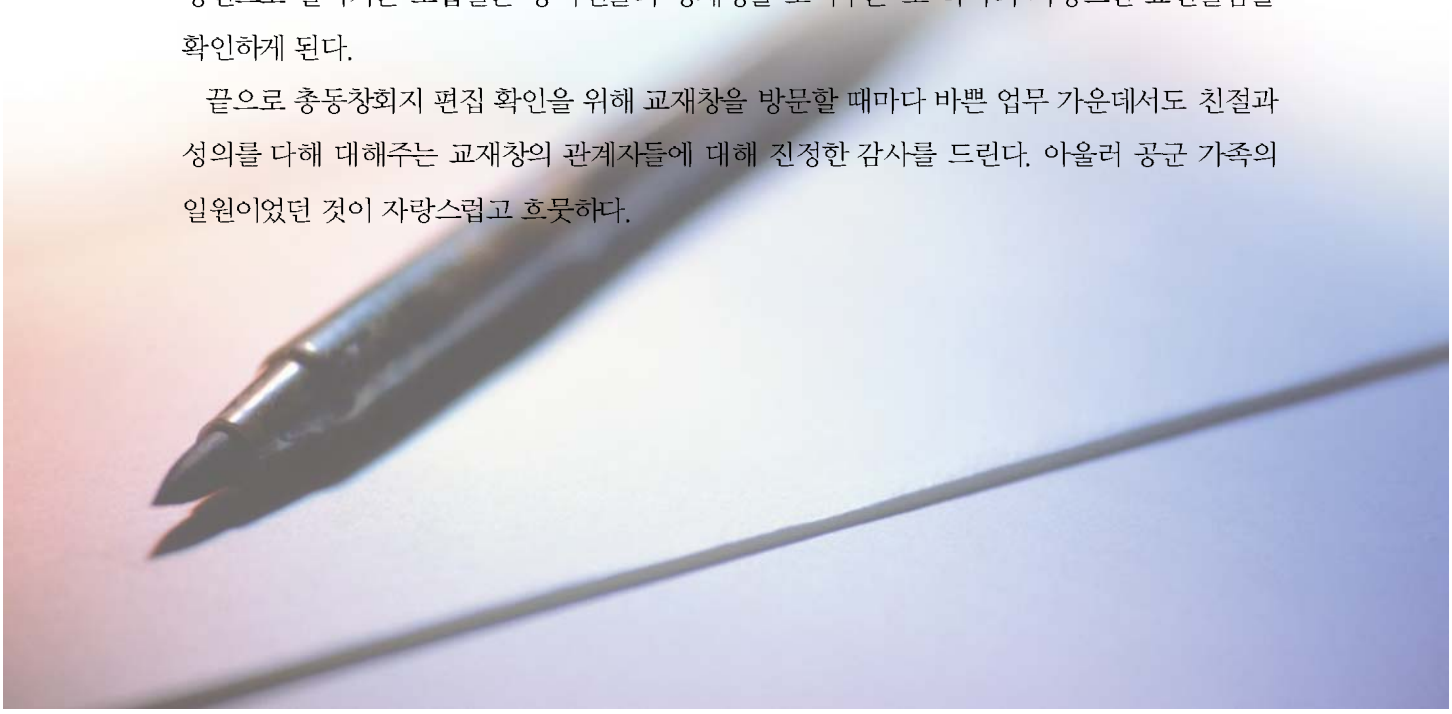
12차년도 총동창회지 편집방침은 총동창회 이사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각 기생 활동내용을 집중 조명하여 보도함으로써 기생활동을 활성화하는데 자극을 주려고 의도하였으나 부분적으로는 활성화되었다. 새로운 동정을 소개할 수 있었던 것은 해외거주 동문들의 관심과 참여때문이었다. 이는 인터넷을 통한 상호 정보교류의 활성화로 나타난 현상이다. 동부지역(뉴욕) 동문회의 소식이 이철우(26기) 동문을 통해 새롭게 성무지에 소개되었고, 심인태(30기) 동문의 관심으로 최근 미주 서부지역의 소식들이 들어오게 되었다. 비록 공군사관학교 출신은 아니지만 어떤 인연으로 아직도 마음 속에 공군사관학교에 대한 애정을 가진 분의 글을 실었다.

이제 전체 졸업생 수가 8,000여명으로 늘어났는데도 동창회지에 접하지 못한 수많은 동문들에게 보낼 수 있도록 충분한 부수(7,500부)를 증간할 수 있게 배려해준 공군본부의 관계 참모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공군사관학교의 뿌리를 찾아 나선 답사 일지는 그 내용이 지난 우리나라가 겪은 굴곡된 수난사(受難史)의 길임을 새롭게 다시 느낄 수 있었다. 굴곡진 길을 따라 오다 최종적으로 둥지를 튼 곳이 청주의 쌍수리이고, 이곳이 산수가 수려한 성무인의 고향이 되었다.

우리는 공사인이기에 공사인으로서 자랑스럽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단면으로 소개하여 보았다. 공군을 떠나서도 변함없이 살아 있는 것은 공사인의 정신이고, 그 정신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은 공사인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자랑스런 표현들임을 확인하게 된다.

끝으로 총동창회지 편집 확인을 위해 교재창을 방문할 때마다 바쁜 업무 가운데서도 친절과 성의를 다해 대해주는 교재창의 관계자들에 대해 진정한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공군 가족의 일원이었던 것이 자랑스럽고 흐뭇하다.



대한광업진흥공사는

세계가 무대입니다

해외자원개발의 선두주자

대한민국 資源報國의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KORES 대한광업진흥공사
Korea Resources Corporation

〈기고안내〉

연간 2회(매년 1월 1일, 7월 1일) 발행되는 동창회지에 논단, 수필, 여행기, 사관학교 시절의 에피소드, 삶에 대한 교훈을 줄 수 있고, 무엇보다도 공사인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수필 성격의 글을 포함한 생활잡기(건강관리, 취미활동, 관심분야 등) 등에 관한 내용의 기고를 언제든지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행일 : 2005. 7. 1.
발행인 : 박춘택
편집인 : 정민남
발행처 : 공군사관학교총동창회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358-1(우156-808)
전화 : 02)823-1091, 팩스 : 02)823-1092
E-MAIL : airfa04@hanmir.com
HOMEPAGE : http://공사총동창회.com

新/광/개/토/대/왕/비
에너지 영토확장!
광활한 대륙을 향해 뻗어나갔던 광개토대왕
이제 한국석유공사가 에너지 영토를 확장해 가겠습니다!
베트남 바다에서, 페루 아마존 밀림에서,
리비아 사막에서 그리고 산유한국 동해에 이르기까지
석유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우리의 여정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 생존에
필수적인 석유자원의 확보를 위해 해외의 바다와 땅에서
우리의 에너지 영토를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염원인 에너지 자립, 그 중심에는
한국석유공사가 우뚝 서 있습니다.
국가의 영토에는 경계가 있지만, 에너지의 영토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KNOC
한국석유공사